朝鮮日報
夕刊
九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 六處에要塞構築
# 西南軍戰備急進
## 中央과의海戰을豫想하고
## 戰爭氣分이橫溢!

【廣東八日發同盟】第一集團軍長陳濟棠氏는 八虎、長州、安豊、雷州、汕頭、海口의六個所에 要塞를建築하고 守備隊의 增員을行하고 다시 廣東省의 咽喉인要塞地에는 七日完全히 陸戰隊의配備를 進行하고잇다 右는 中央과의 海戰을 豫想하고 萬全의準備를 進行하고잇는것이다 當局은 北江、東江其他五十餘縣에對하야 每縣에 人夫百名의 提供을 命하고 軍需、北部、兩省境에는 軍隊의 大量輸送及兵器의 集積을 行하고잇다 그리고 一方 當局은 民衆을 總動員하야 宣傳에 注力하고잇는데 戰時氣分은 橫溢하고잇다

【廣東八日同盟】西南軍은 目下 中央軍이 가지고잇는 吉安을占領함에 依하야 軍事行動을緩和하고政治的折衝에 들어갈 模樣인데 情勢如何에 依해서는 軍을 武昌、九江線까지 進하야全國의 反蔣呼應軍에게 訴하야 一擧에 中央과 輪贏을 決하려는 意向인모양이다

【廣東八日發同盟】南北兩軍의總動員은 다시西南聯合軍의 湖南進出로 南北兩軍의 一大衝突은不可避의 形勢가되어 廣西第十五師는 湖南省衡陽에서 廣東軍第二軍張達部隊를 合體하고 또 廣西軍主力의 集結을 기다려衡山經由一擧에 株洲를 또寶慶方面에잇는 廖磊氏가 引率한廣西第七軍은湘鄉湘潭을 各各衝擊하려는中이다 이에對하야 蔣介石氏는 湖南省首席何鍵氏에게 命하야 醴陵、湘潭을 連하는線을 第一線으로 또 湘、汨羅、平江을連하는線을第二線으로 防禦陣을펴고 北上하는 兩廣軍을 邀擊하려는 姿勢에 잇는바 南北兩軍의 大會戰은 드듸어 旬日을 지나지안흘것으로 觀測된다 (寫眞은 陳濟棠氏)

南軍進入에對하야 省政府主席何鍵氏는 極度로 焦慮하야 連日湖南軍의 態度를 決定하기爲하야 將領會議를 開하고잇다 何鍵氏는 貴州에잇는 湖南軍을 至急 召集하야 萬一에 備하는外에現在로는 西南軍의 進出을 阻止할 能力이업서 灰色態度를 가지고잇다

### 二中全會는
### 蔣氏의西南懷柔策

【上海九日發同盟】國民政府는二中全會의 召集에依하야 西南問題의 政治的解決에 進出하기로 決定하엿는데 蔣介石氏는 다시一步進하야 張繼、王寵惠氏等西山派長老를 西南에 特派하야陳濟棠、李宗仁氏等에게 國民政府側의 對策을 提示하고 西南側이 二中全會에 參加하기를 懇請하기로 決定하엿다 卽 張王兩長老는 數日前 廣東으로부터 歸來한 孫科、許崇智氏 等으로 蔣介石氏의 西南懷柔策의第一段階가 果然 如何히 酬할는지 그進步는 極히 注目되고잇다

### 中央空軍
### 兩廣軍爆擊準備

【上海八日發同盟】中央의 空軍은 長沙 南昌을 中心으로 集結하야 兩廣軍을 爆擊할 準備를 進行中인데 浙江省 衢州 長沙、吉安의 飛行場에 臨時航空隊를 配置하고 江西省吉安에는 大量爆彈을 輸送中이다 南昌、衡州、長沙의 飛行場에는 이를警戒하야 兒軍을 命하고 또 西南空軍의 襲擊에 備하야 都市防空對策을 急히 行하고잇는中이다

# 西南北伐軍의
# 各部隊配備狀況

【廣東八日發同盟】西南軍의增援部隊는 續續前進中인데 八日까지의 各部隊配備狀況은 大體如左하다

一、福建、廣東省境
廣東軍第三軍李揚敬麾下部隊를配置
이方面은 專혀 防禦隊勢를取하고 福建으로부터의 中央軍의進擊을阻止하려는것

一、江西、廣東省境
廣東軍第一軍余漢謀麾下部隊를配備하고 吉安으로부터進擊하려는것

一、湖南廣東省境
廣東軍 第二軍張達麾下部隊를 充當하고 이미 宜章에 部隊를 集結하고 衡陽에 進擊하야 이미 一部는 衡陽에入城

一、湖南廣西省境
廣西軍廖磊麾下의 第七第十五軍을 零陵、祁陽에 集結하고 衡陽에 進擊하야 廣東軍第二軍과 合流하려는中이다

一、貴州、廣西省境
專혀中央軍의 貴州로부터의進入을 阻止하기爲하야 鞏固한 防禦陣地를 建設하엿다

廣西軍과 合體하엿다 이리하야 西南軍의 湖南進入部隊는 合計約一萬五千에 達하엿다 이에對하야 蔣介石側은 極力 愼重한 態度를가지고 西南側이 抗日의 表面看板을 들고잇는것만큼 此際에 一擧 西南에게 도로혀 反蔣을 激化케하는것이라는 見解下에 可及的衝突을 避하려고 中央軍을 長沙線까지 後退케하고잇는데 萬一의 境遇에는 斷乎 西南側을殲滅하려고 長沙에는 이미 空軍의 大部隊를 集結하고잇다

【南京八日發同盟】蔣介石氏는八日 當地四明公園에서 現下의西南問題에 關하야 如左히言明하엿다
西南과 中央間에 意見의相違가 잇는것은 事實이나 그것이 戰爭에까지 進展하는일은 업슬것이다 兩廣의 軍備는分明하지못하다 開戰이나 和平이냐는 中央에서 二中全會를召集하야 討議하여야할것이오 中央이라하드라도 單獨으로決定할것이 아니다 西南이 抗日通電을 發하엿다는데 그것은 中央의 關知할바 아니오 大體外交는 和平政策으로써決定되지안흘것은 업다고 생각한다 西南問題도 잘 硏究하야 善處하겟다 西南이 中央에 對하야 軍事行動을 開始하엿다고는 생각되지안는다

# 開戰?和平?
# 二中全會서決定
## 對西南問題를解決하려고
## 蔣氏二中全會開催

【南京八日發同盟】國民政府는西南問題를 解決하기爲하야 最短期間內에 第二次中央全體會議를 開催하기로 되엇는데 右는 西南이 抗日通電을 發하고 軍事行動을 起한以來 國民政府는 外部에 對해서는 極力 事實隱蔽에 努力하는一方 內部的으로는 手段을 다하야 西南側의 結束破壞와 政治的折衝을 進行中인데 겨우 問題解決의 豫測이 서게되엇스므로 二中全會의 名目下에 西南問題를 解決할것으로 되엿다 그런데 蔣介石氏로서는 獨裁者라고 西南으로부터 指目되고잇는 關係上 如何한 解決案을 提出하더라도 獨裁者의 暴案이라고 惡名을 질머질 立場에 잇스므로 形式的으로 二中全會를 開하야 그이름미테서 獨裁的解決案을 西南에 强要하려는 모양이다 (寫眞은 蔣介石氏)

### 湖南連日將領會議

【漢口八日發同盟】西南軍의 湖

# 抗日意識揭揚코
# 將兵徵募를開始
## 兩廣軍을『國民革命抗日救國軍』이라改稱
## 舊十九路軍再編成

【廣東八日發同盟】國民革命抗日救國軍이라고 改稱한 兩廣軍의 充實을 圖하기爲하야 上海事變의 舊十九路軍의將兵을 徵募하기로 決定하고八日黃浦軍官學校에 登記所를設하야 徵募를 開始하얏다 陳濟棠氏는 此際舊十九路軍將兵으로써 獨立軍團을 組織하야 特히抗日空氣를鼓吹하고잇다

### 抗日을憑藉코
### 李宗仁氏反蔣絶叫

【廣東九日發同盟】西南軍과 中央軍의 緊張切迫에 따라 西南軍이 揭揚한 反蔣題目 卽 偽抗日宣傳은 날로 熾烈하게되어 第四集團軍總司令李宗仁氏는 八日 聯合紀念週席上에서 第一、第四集團軍은 抗日의旗幟를들고 出師한다 國賊奸漢인 蔣介石의 無抵抗主義를粉碎하지안흐면 안된다 고 絶叫하야反蔣攻擊의 長廣舌을 吐하엿는데 또 反蔣宣言에는 如左히 公表하엿다
一、我軍師旅의 이르는곳 卽時日本과의 一切關係를 斷絶하고 또 日中間에 締結한 一切의 屈辱的協定을 取消하라
二、我軍今回의 北伐은 抗日을唯一의 目的으로하고 一切의 內亂에 反對한다

# 小協商國結束!
## 三國參謀本部會議開催

【브크레스터八日發同盟】小協商國元首會議의結果 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체코슬로바키아의 三國參謀本部首腦部는 六月十四日 브크레스터에서 會合하야 三國의 軍事問題에 關하야 協議하기로되엇다 會談內容에 關해서는 秘密에 附하고잇스나 會談의 目的은 三元首會商에 基하야 外交的、政治的互助精神을 具體化할것 또 會談의結果 어떠한 小協商國間의 軍事相互援助條約締結이 豫想되고잇다

### 佛內閣도庶政一新

【巴里八日發同盟】블룸首相은組閣以來 罷業解決、財界安定、社會政策의 急速立法化에 熱中하고잇는데 八日午後의 閣議에서는 勞働四十時間制、有給休暇制、團體交涉權等에 關한 法案을審議하야 午後二時十五分 審議를 了하얏다 블룸首相은 다시 庶政一新을 企圖하고 特別委員을 任命하야 關係法案의 起草를 委囑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 루즈벨트氏
### 中西南部遊說

【華盛頓七日發同盟】六月二十三日 필라델피아의 民主黨大會에서 出馬하기爲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은 八日午前 華府出發 南部中西部各州의 遊說旅行에 赴할豫定인데 同大會가 루즈벨트氏를 再次 大統領候補에 推薦할것은 旣定事實이다 따라서 十一月의 大統領選擧戰에는 루즈벨트大統領은 再次 民主黨의總務를 잇글어 全國에 轉戰할터로 今回의 地方遊說도 이意味에서 重大意義가 잇는것이라고 보고잇다

# 農林局課廢合코
# 米穀、農振兩課新設

總督府에서는 時局柄 朝鮮農村振興의 重要性에 鑑하야 農林局에는米穀、農村振興의 二課를 增設하기로 되어 잇서서 事務能率上으로도 課의 增設은 一考를 要하므로 目下 農林局長室에서 愼重對策을 考究中인데 結局 米穀、農村振興의 兩課를 新設하는 一面 現在의 農政課와 農産課를 合併하야 農務課로 還元하고 土地改良課와 水利課와를 合併하야 耕地課로하야 一局六課의 現陣容을 維持할方針인 模樣이다

# 道義的見地에서
# 諸條約檢討必要
## 國聯圈外에國際會議開催力說
## 駐米中國大使의演說

【華盛頓八日發同盟】華盛頓駐箚中國大使 施肇基氏는 유-라大學에서 國際情勢에 關하야 如左한 演說을 하엿다
國際間의 今日情勢는 不滿足의 極에 達하엿다 徹底平和는 危機에 直面하엿다 現行 國際諸條約은 道義的見地에서 再檢討하지안흐면 안된다 特히 領土分布 其他의 現行諸條約의 諸缺點을 除去하기 爲하야 速히 聯盟機構의 埒外에 特別國際會議를 開催하고 領土再分割 其他의 諸提案을 하지안흐면안된다 勿論 諸國間의 物質的權益은 相互交錯되어잇스므로 國際會議에서는 이것도 討議함을 要한다 (寫眞은 施肇基氏)

### 文部次官以下
### 各局局長更迭

【東京電話同盟】平生文相은 就任以來 部內人事刷新에 關하야 腐心中이엇는데 三邊次官이 後進에게 길을열고저 辭表를 提出하고 이어서 山口縣知事에 不遇로 轉出하엿스므로 이를 受理하고 九日의 閣議에 請하야 上奏裁可를 어든後 發令되엇다
文部省 普通學務局長
從四位勳三等 河原春作
任文部次官(一等)
文部省思想局長
從四位勳三等 伊東延吉
任文部省專門學務局長
兼思想局長(一等)
文部省實業學務局長
從四位勳三等 菊池豐三郎
任文部省普通學務局長(一等)
文部次官
專門學務局長 三邊長治
依願免本官(各通)
赤間信義
그런데 實業學務局長은 香川縣知事 藤野惠氏로 內定하엿스나 地方長官 異動이 十二日後가되므로 그때까지 河原次官이『事務取扱』을 보기로되엇다
文部次官 河原春作
命(實業學務局長事務取扱)

# 外相、首相과會見
## 리氏와의會見準備整頓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九日午前九時 首相官邸에 廣田首相을 訪問하고 用談後 閣議에 列席하엿는데 이는 有田外相이 目下 訪日中인 英國遣中經濟使節리드로스氏와 同日午後에會見키로되어 잇는데 이會談은日、滿、中、英의 關係에 相當한 重大性을 가진것이므로 미리廣田首相의 意見을 聽取하야 리드로스氏와의 會見準備를 整頓한것이다

### 城大農學部
### 急速實現不可能

京城帝大에 農學部를 新設할 問題는 農業指導의 立場에서 學務局에서 考慮하고잇는데 現下의 朝鮮農村의 實勢는 오히려 農業의 最高指導硏究機關의 設置보담도 普通的으로 指導機關의 擴充하는것이 必要하다고하며 또農科大學의 新設經費等으로 目下 農村振興運動의 實際的諸經費가 緊要하다고 하고잇스므로 城大의農學部新設은諸種의 事由로 이兩三年間에 早急히 實現되지못하리라고 보고 잇다 右에關하야 今井田政務總監은 말하엿다
農科大學이든 무엇이든 農業科目을 朝鮮內에 增殖하는것은 非常히 조흔일이나 只今 早急히 成立될는지 疑問이다 朝鮮은 아모래도 農村이 主體이므로 그實情에 即應하야 着着 準備해가는편이 至當할것이다 城大도 醫學、法文學部가잇는데 거긔에도 內容에는 幾多의 整備를 要하는것이잇서서 이편이 先決問題이다 水原高農을大學으로 昇格한다는것도 부질업시 名大、廣少로 內容이 充實치안흐면 아모것도 아니다 먼저 內容充實이 目下의 急務로서 水原高農程度의것이 朝鮮에는 必要하다

# 諸外局專掌할
# 無任所大臣設置
## 總理大臣의補佐役

【東京電話同盟】庶政一新을 標榜하는 廣田內閣은 行政機構改革의 第一步로 內閣直屬의 스탑을 考慮中인데 그具體策으로는 內閣直屬諸外局을 專掌할 無任所大臣格의 首相補佐役을 設置할案이 가장 有力化하고잇는바 內閣에는 直屬外局으로 法制局 調査局 資源局 統計局 印刷局 賞勳局 東北振興事務局 對滿事務局의 八外局이 現存하야 法制上으로도 다 內閣總理大臣이 管掌하기로 되어잇스나 事務에 忙殺되고잇는 首相은 事實上 此等 諸機關의 事務管掌에까지 손이미치지안는 實情에 잇스므로 此等 事務를 一括하야 專掌하는 首相의 補佐役을 만드는것이 가장 緊要한데 이에 對해서는 적어도 將來 內閣調査局을 强化하야 調査局長官을 無任所大臣에 充當한다는 案도 잇스나 이는 이미 部內에 相當한 反對論이 잇스므로 結局 內閣諸機關을 統合하야 一括統轄專掌할 機關을 設置하게될것이 아닌가 觀測되고잇다

# 團體交涉權確認
# 四十時間制確立
## 一年中二週間有給休暇承認
## 佛大罷業解決內容

【巴里八日發同盟】佛國産業界空前의 大罷業도 블룸首相 사랑그로內相의 不眠不休의 斡旋으로 겨우 解決의 緖에 就하야 八日午前一時 勞資代表者間에 解決案이 成立되어 調印을 了하엿다 解決案의 骨子는 大體 如左하다
一、勞働組合加入權의 確認
一、組合代表發言權의 承認
一、四十時間制確立
一、一個年二週間의 有給休暇制
一、團體協約權의 確約
一、最低賃銀制의 確立(이에依하야 事實上勞銀은 七分乃至一割五分增加가된다)

### 北佛十五萬鑛夫罷業

【아라스=北佛=八日發同盟】아라스의 炭鑛勞働者는 罷業을 開始하고 八日에 至하야 炭鑛罷業은 擴大되어 十五萬에 達하게되엇다 罷業團은坑口의 附屬建物을 占據하고 氣勢를 올리고 잇는데 現在로는 不詳事勃發에까지는 이르지안헛다

### 松岡總裁渡東

【大連九日發同盟】松岡滿鐵總裁는 定時株主總會에 出席次 九日出帆의 우루구아이丸으로 渡東하엿다

### 人事·集會

▲岡崎哲郎氏(日本赤十字社朝鮮本部副總長) 新任人事次來社
▲宋鎭禹氏(外事課事務官) 九日朝 前任地奉天으로부터着任

###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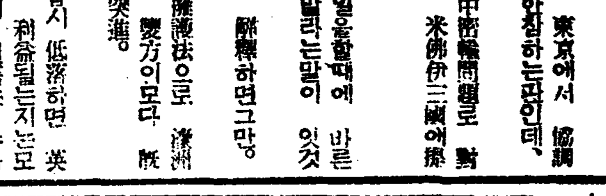
◇리드로스는 東京에서 協調(?)工作을 한참하는판인데, 英政府는 北中密輸問題로 對日共同抗議를 米佛伊三國에 提議.
◇엇준이 착한일을할때에 바른손도알리지 말라는말이 잇것다.
◇日本은 通商擁護法으로 濠洲는 新關稅로 雙方이모다 敵對方針으로 突進.
◇濠洲羊毛시 갑시 低落하면 英濠綿絲業者가 利益될는지는모르나 生産者의 損害는 누가물어주라는고.
◇閉幅으로 相爭하든經驗이 尙新하니 우연만하야 戰爭에서 이름어름할이若何.

개량담배대
便利하고 價格이 廉하야 京鄕間에 流行되는 개량담배대
製造發賣元
京城府鍾路三丁目六九
德昌工業社
型錄及定價表 送呈합니다

朝報案內
外務社員採用
府內에 精通한 內鮮人二十五歲以上四十歲까지의 有經驗家를優待採用할希望者는履歷書携帶하고本人來談할事 但保證人을要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五 共濟無盡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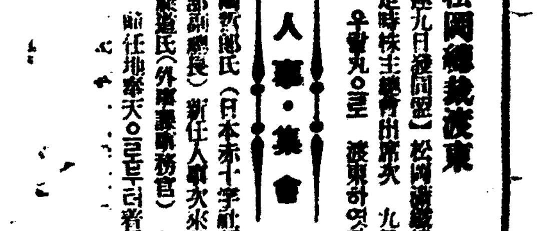
有給男女社員
至急募集 普通賣品 宣傳販賣用 希望者는 履歷書持參 至急來談
京城府本町一ノ一〇七番地 京城興行社內 販賣所 國際洋行

리리얀
푼사실
끈색실
바늘, 전사지, 수본, 색재지, 문화자수, 자수, 刺繡其他 佛蘭手藝材料 製造部
本社 京城府西大門町 南米倉町 三
靑光堂 朝鮮沙里院 七六七番
一本町 三七六七番

醫學堂眼鏡店

檢眼 無料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府鍾路靑年會館 電光二二八八番
醫專病院眼科指定

特選歌謠曲集
洪蘭坡編·合唱獨唱名作七五曲
洋裝金文字·定價金一圓五十錢
京城府紅把町二
發賣所 硏樂會
振替京城七三三

型錄進呈


昔も今も
效能
上氣를引下하고 通便을 圖함
梅毒淋疾諸毒을除함
效能で賣れる
七ふく ひあぶぎり
本家 七ふく 伊藤長兵衛
大阪·高津表門筋
振替大阪九七三·電話南七二九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夜學新學期開始七月一日◇學則要二錢切手
第四七回補缺生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二三番地 (電本五三六〇番)

◎新學期開始七月二日(晝夜)(學則要貳錢切手)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又ハ編入學受驗準備補缺生徒募集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 電本五三六〇番

賣家
店舖住宅
京城西大門町二丁目八六番地二層瓦家
京城社稷町一八五番地
住宅希望者는 附近福德房에問議하시오

京春鐵道株式會社株式
募集要項
一、資本金 壹千萬圓
一、株ノ金額 五拾圓
一、募集株數 參萬株
總株數二十萬株ノ內十七萬株ハ發起人及贊成人引受
一、申込單位 拾株
拾株以上ト雖端數ヲ附セサルコト
一、申込期間 昭和拾壹年六月十日ヨリ十二日迄
但シ應募ノ狀況ニヨリ期間內ト雖締切ルコトアルベシ
一、申込證據金 壹株ニ付壹圓
一、第一回拂込金 壹株ニ付五圓(證據金併算)
一、拂込期日 昭和拾壹年七月一日
一、募入決定 (應募超過ノ場合ハ發起人ニ於テ適宜募入決定ス)
申込取扱店
朝鮮殖産銀行本店
同 鮮內各支店、出張所
山一證券京城支店
山本源作商店 電本三一五一·九·三五二〇
大原株式現物店 電本五一九一·五一九五
德泰公司京城支店 電本五一三二一·五一三三五
新田義民商店 電本二一六一·二一八
北村友一郞商店 電本二一七〇·〇一四四
小林幹三商店 電本四〇七一·五五二四
東亞證券株式會社 電本四一六一·四一六六
秋田秀穗商店 電本五一六一·五一六七
內海淸藏商店 電本五一五五·五一五九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電本三一二五·三一二九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內
京春鐵道株式會社設立事務所

모루히네
其他鹽類中毒에
一朝에治療를그릇처서『모루히네慢性中毒』으로移行하야『모루히네』奪除困難에苦悶하시는분은곳福모나-루療法에依하야確實하고完全히事業을하면서모루히네類를除去할수잇고速히舊健康體에回復함으로써安心하고應用하기를切望하는바입니다
(文獻贈呈)
皮下 5管入 10管入 20管入 50管入
錠劑 包裝
製造元 順天堂醫化學硏究所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田邊五兵衛商店

福 모나-루 モナール
MONALFUKU

# 警察搜査도徒勞 罷業團은地下로

## 交涉도不能、解決은杳然! 輪業界에暗雲低迷

### 朝日 시罷業第二日

대우개선(待遇改善)의 깃발을 들고 돌연 이러난 조일(朝日)택시—운전수 파업사건은 구일정오까지 한등해결의서광을 보이지안코 여전히 양자간에 대립상태를 보이여 이로말미아마 장안의 자동차계에는 불편속선인식커먼구름이 떠피어불안상태를보이고잇다 그런데 파업관게가 교통관게이니만큼 회사당국과 경찰당국은 초조한가운데서 무슨 해결의 실머리를 붓들려고 애쓰나 운전수측의 단결이의외에강경하야지까지일치단결의보조를 일지 안코 비밀리에 시내모처에서 단속한그대로 대리하고잇다한다 그럼으로 회사당국과경찰당국은 그들의 소재를 알려고 구일새벽부터 각방면으로탐지하려고 애쓰고잇스나 그노력도 수포에 도라가고 파업단본부는 지하로기피 드러가잇는모양으로 따라서 현재로보아서는 운전수측은 요구조건을 전부드려주지안호면 교섭절충도 하지안켓다는태도로 파업당사자들이 전부 피신하고잇슴에 따라 해결의서광도 묘연한모양으로 압호로 추이는매우 주목된다

### 運轉手를新募 不參運轉手로補運

전긔와가티 파업은여전히 계속되고잇서 회사당국은 위선 옹급대책을 강구하고 잇는중인데 작일 공휴(公休)또는 교대(交代)로 파업에참가하지안흔 운전수들을 약십여명을 비상소집하야 거이강제적으로 취업시키고잇스나 그들도 거이태업적긔분을보이고잇스며 이에 회사당국은 일책을강구하야 도보안과의 양해하에 경긔도(京畿道)취업면허증업는 사람이라도 운전수면허증만잇스면 취업할수 잇다는 조건으로 운전수모집광고를 내여부치고잇는데 이에대하야 도보안과에서는 이와가튼 양해를 해준사실은 절대업다고 부안하고잇다

# 保安課待遇規定 業者大部가食言

## 五月一日부터實施豫定을 遷延一貫今日에!

경성부내택시영업자들이 모히서 경긔도보안과당국자와 세밀히 토의한 끄레 소위 자동차운전수대우개선안(待遇改善案)을 결정하야

一、예비원(豫備員)은 자동차 네대에 대하야 한명식을 두고 그다음으로 세대를 더하게될때마다 한명이상을 둘것、

二、공휴(公休)는 한달에 오일이상으로 돌려가면서 줄일 공휴일에 세시간이상 근무한때에는 그이튼날의 출근시간을 유예할것

三、운전수복장은 『쓰메에리』로하고 자동차경영자가 빌려주거나 또는 그반액을 부담할것

다만 일년마다 여름옷과 겨울옷 한벌식과 모자한개로정함

四、일삭은 초급은 일백원이상으로하고 다음과 가튼 표준으로 더줄것

즉 수입수당(收入手當)은 수입금액이삼백원을 넘는금액에 삼백원까지는 오분 오백원까지는팔분 오백원을 넘는때는 일할을 운전수에게 줄일

한달 개근자(皆勤者)에게 오원의 정근상(精勤賞)을줄일

한달동안 사고업는 운전수에게는 오원이상으로줄것

아페쓴 제도대로시행 하지안는 곳에서는 초급(初給)은 사십오원이상으로줄것

승급은 륙개월마다 최저일급삼전으로부터 최고이십전까지 성적을 고사하야 승급시킬것

휴일은 그날의일급을 줄것

시간밧게 근무하거나 공휴일에 세시간이상 근무한때는 다시일급의 하루분에 상당한일삯을더줄것

변말상여는 매년십이월말에줄것

다만 근무성적이 우량한 사람은 류월말에 특별상여를줄것

五、퇴직수당(退職手當)은 삼년이상 한경영자의 자동차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경우에 다음과 가튼 비례로 줄것(다만징계면직 (懲戒免職)에 처할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바다서결정 할것)

1、삼년이상 근무한 사람은일급일개월분의 이십할이상

2、오년이상 근무한 사람은일급 일개월분의 삼십할이상

3、칠년이상 근무한사람은 류십할이상

손해부당(損害負擔)은 교통사고 기타 업무로종업원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때는 경영자의 책임으로 제삼자에 대하야손해를생기게 한때는 경영자의 책임으로 제삼자에 대하야 손해를 무려줄일

(다만 종업원이 중대한 과실이 잇는때는 그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시킬)

七、운전수의 안해가 아이를나앗슬때에는 자동차 경영자가 선사를하고 다른 재액이 생겻슬때에는 경영자가 상당한 구조의 방법을 강구할것

고의(故意)또는 중대한 과실이아닌일로 운전수가 상햇슬때에는 그치료실비는 경영자가 부담할것

등 여러가지 세측을드려 발표하야 오월일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엿는데 영업자들은 이안(案)을제정할는 그직석에서는 꼭를립여시、괜시 하겟다며 맹세를하고서 벌서한달이 훨신지낫스나 경성부내에서 실제로 그대로 현재실시하고 잇는곳은 한군대도 업고 근사한 동도로실시한곳은 오륙개소되며 그대부분은 예전대로 그냥 대우하고잇서서 운전수들은 대개 주인에게 수차요구하엿스나 남과가티 하나흑은 이달안으로는 봉급을 확정하겟다고 차일피일로 끄을고 잇는 상태이므로 서울안 운전수의 대부분은 모다불평괴불만을 가지고 서로 모히기만하면 수근 거리고잇는 상태이다

그래서 소위운전수 대우개선안은 한개의 지상공론(紙上空文)으로 되여잇서서 운전수측에서는 경기도당국자의 무렴한것을도로혀 비난하고잇다

## 模範商工從業員 表彰式盛況

【新義州】 신의주 상공회의소주최의 제사회모범상공종업원표창(第四回模範商工從業員表彰)은지난 륙일 신의주공회당(公會堂)에서 성대히 거행하얏다 한다

# 李朴兩人은免職 新職員으로葬務代行

## 荻野府衛生課長聲明發表 骸骨挾雜事件一段落

여러번 본지에 특보된 리태원공동묘지 해골협잡사건의 주범 리홍순(李鴻淳)과 그공범자인전경성부서과 박영옥(朴永郁)등두명과 그련루자등 일당여덜명은 룡산서에서 드디어 모든 죄상을 자백하고 말어서 이제는몬초의 큰고비가 넘어갓슴으로오직 송국준비로 조서(調書)정리에 몰두하고 잇는중인데 이로써 사건은 한고비의 단락을지은모양이다 따라서 리홍순은사건발생되든당시에 박영옥은 지난여섯달 날짜로 각각 해직을 당하고말엇는데 리태원묘지에는 딴직원들을 보내서 리홍순의 마터보든 사무를 대신집행하게 하고잇는중이다 아에대하야 부적야(荻野)위생과장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梨泰院墓地改葬에 잇서서 墓地看守人李鴻淳과 및 府書記朴永郁等의 자미롭지못한 行爲로 改葬者들에게 未安을 끼치게되엇은勿論、一般府民의 疑惑을밧게 되것은무엇이라고말할수업습니다 右兩人의 不正行爲에對하여 當府廳에서 取調한바대로보면 看守人李鴻淳은 現場火葬者의 依賴를밧고 火葬費用人夫賃、木炭代、絨、麻布、七星板等 費用을 마치 府에서 徵收하는것처럼誤信시켜서 實費以上으로 돈을내이게 해가지고 不當利益을 收得한모양이고 또 府書記朴永郁은 前記李鴻淳과 사이에 金錢貸借한事實이 잇슬뿐더러 入夫賃金支拂에 關해서도 疑心스러운 行爲가 잇는듯합니다。이까닭에 두사람에 對하여는 이미 각각解職處分을 하고말엇습니다。그리고 兩人의 行爲에대해서는 지금 司直의손으로 取調中이므로 左右間 그眞相은明瞭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對하야 善後處置로서 새로改葬擔任者의 增置를하고 陣容을 整頓하고 取扱上及取扱上遺憾업슴을 期하야 又火葬設備에 改善을 實施하겟습니다

또 火葬費에 對해서는 人夫賃과 및 各種物品을 各各 一定한 價格을 表示한 立札을 군데군데 配置해노코 不當한 出費를 防止하게되엿습니다。

# 待望의甘雨도 병아리눈물!

## 洽足한비는아직바랄수업고 各地는乾장마天候

팔일이래로 저기압의 확대는 오래동안 가물든끄티라 일반농가는물론 도시인에잇서서도 음료수부족으로 험덕이는띠에 크게기대를가지고 긔두리고잇든바 구일까지의 우량은 실로 병아리눈물로부랑도못되는형편으로 구일아침까지의 각지우량을 보면다음과갓다

中江鎭一미리 元山一미리 木浦一미리 江陵一미리 雄基三미리 大邱一미리 全州一미리 釜山一미리 濟州島三미리

이리하야 중강진(中江鎭) 평양(平壤) 경성(京城) 강릉(江陵) 웅기(雄基) 원산(元山)등지는 장마가되는모양이나 적은비가 오락가락할 정도요 이모양으로보아서는 흡족한비는 바라기어려운 형편이라고한다

# 全朝鮮類似宗教에 不日中에大鐵槌

## 普天教、甑山教、東華教等 宗教的行事의撤廢를斷行

저번에는일본내지에잇서서 왕인삼랑(王仁三郎)의 대본교(大本敎)가 철저한 복멸을당한등사상통제(思想統制)의 대선풍이 불기시작한지 이미 오래되는이때 전북정읍(全北井邑)을 근성(根城)으로하고 전조선에 오만의신도를가진 죽은차천자(車天子)의 보천교(普天敎)와 일만의 신도를가진 조천자(趙天子)의무극교(無極敎)삼천의 신도가잇는 강증산교(姜甑山敎)와이천의신도를가진 동화교(東華敎)에도 전북경찰부(全北警察部)가중심이되여 드듸어 불일내로 전조선에 일제히 철퇴를내려 신도의집회는 물론포교(布敎)수금(收金)등 일체의 종교적행사를 금지할것은물론 각처에걸려잇는 간판(看板)까지철거명령을내려 오래동안을두고 기피뻐치고잇든 뿌리를 한거번에빼여 버릴작정이라고하며 이와가티 탄압을내리는 리유로는 전긔제파의신교가 모다 농촌진흥운동(農村振興運動)에대하야 반대적역할을 하다는데잇다고한다

# 추력이兩名殺傷 岡崎町大路上에慘事

쫏차가려 질주하는 추력에 두생명이 갈린대참사—구일오후 한시십분경 부내 강긔정(岡崎町)십사번지 성야상회(星野商會)압 큰길거리에서는 부내교북정(橋北町)일백오번지 장이봉(張二鳳)의소유 추력 경(京)오천일백오십오호가 남대문통으로부터 한강교 방면으로 질주하여가다가 전긔 장소에서 부내청엽정(靑葉町)일정목륙십구번지신홍헌(申興憲)(三〇)의삼남 상의(相義)(六)와 또련병정쪽에서 남대문방면으로 드러가는 경(京)륙만사천이백호 자전거몰란 이십칠팔세된 조선인남자를한꺼번에 가려서 전긔상의란어린아해는 두개골이으서지며 현장직사하고 또 자전거탄든 남자는 외편다리가 부러지며 인사불성되엿슴을 즉시 『세브란스』병원에 떠메다가 응급수당중인데 그의신원은 방금 혼수상태임으로 알수업고 운전수는 즉시어데로인지 종적을 감추워버려서 소할 본정서에서는 범인을 각방으로 수배엇탐중이다 (사진은 참사현장)

## 暴行營林署雇員 控訴公判開廷

영림서(營林署)고원으로 잇스면서 직권을남용하야 거짓투서를 하엿다고 인민을 붓잡어다가사무실에 감금하고 곤봉으로 함부루때리어 중상을입힌 체포감금폭행상해(逮捕監禁暴行傷害)사건 피고는 함남갑산군혜산읍혜산리(甲山郡惠山邑惠山里)영림서고원 김영하(金永河)(三〇)에관한 복심공판은 구일오전열시경성복심법원에서 지전(池田)재판장주심 궁정(宮井)검사 관여미테열리여 재판장의 간단한 사실심리와 검사의 공소긔각의견진술이 잇슨다음 폐정하엿는데사건의내용은함남풍산군 안수면장평리(豊山郡安水面長坪里)박근석(朴根碩)과 조성득(趙誠得)이사사로운 협의로 그동리 김영찬(金英贊)이가 국유림의 수목을 수십차나 도벌하엿다는 투서를 하엿다하야 작년구월이십일에조성득과 박근석을 안수(安水)보호구사무소에 호출하여다가 거짓투서를 하엿다고 손발과몃천신을 포승으로 잔뜩묵거노코끈봉으로 함부로 때리여중상을입힌사실이 탄로되야 지난오월팔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체포감금폭행죄로 징역시월의 판결을바덧든바 피고는 이에불복하고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해온것이다

萬人待望의 聲畫中代表作 洪吉童傳 續篇 封切 團成社

## 朝鮮同胞號機

피로식성대히거행

신용욱(愼鏞頊)비행사의 조선동포긔(朝鮮同胞機)피로식은 예정과가티 구일오전십일시반부터 여의도비행장에서 금정전(今井田)정무총감이하 다수관민럼석하에 성대히거행하얏다 식후간단한 축연이잇고 오후한시반경에무사히 순서를 맛치엇다。

## 興進學院記念式

【興南】 흥남읍구룡리에잇는 흥진학원은 현재오백륙십여명의아동을 수용하고잇는데 그학원의 십륙주년기렴식을 륙일오전열시부터 해교강당에서 다수내빈참석중에 거행한바 기념식이끗난후에는 천진스러운 어린학동들의 여흥이잇섯고 겸하여별실에 진렬한 학생작품전람회는 아직다른곳에서 보지못하엿든 호성적으로 당일식이필한후 학원당국자들과 내빈일동에 간격업는간담이잇슨후 동오후한시에 화기만당리에 폐회하엿다

## 瀆職警官 豫審에廻附

【新義州支局電話】 현직경관으로 금밀수사건에 관련되여 지난달 삼십일에 평양(平壤)으로 부터 압래한 순천경찰서(順川署)사법주임 김긔조(金基祖)경부와 평남경찰부형사부장 김병욱(金炳旭)두명은 그동안 신의주검사국에서대판(大坂)검사의 준렬한문초를밧고잇든바 아흐레날두명이 모다그법원예심으로 회부되엿다

## 身病을悲觀 縊首自殺

### 靈泉後山麓서

시내 현저정(峴底町)사십륙번지 구백오십육호에사는 한백진(韓伯鎭)(×)은 팔일오후 다섯시쯤에압바골 약물터(藥泉)뒷산에서 노피가 약이십자가량되는소나무에목을매고 죽엇는데 그는죽첨정(竹添町)이정목 한성(漢城)경미소인부로 년래의신병과 생활난으로 세상을비관하고 그가티 자살을한것이라고한다

## 物的證據全無 搜查에大困難

### 延禧町强盜踪跡杳然

칠일밤에 시내 연희정(延禧町)채소농사짓는 주국사람의 집에 침입한 강도범인은 서대문경찰서(西大門署)와 경기도경찰부형사과에서 협력하야 팔방으로 수사하는중이나 사흘재가되도록선연 그종적을 알길이업다한다 그강도범인들은 교묘히도 가젓든 물건하나도 떠러트린것이 업섯고 지문(指紋)하나도남지지 안햇스므로 더욱이 수사에힘이드는 모양이다 범행한 그부락에는 조선사람이나 일본가지인으로도 상당히 조흔집을 지니고 재산을만히 가진이가살고잇슴에도 가리지안코 특별히 루추한 그중국사람의집에 드러가서 돈을 빼아서간것을 보건댄 범인은 번데서 온것이아니고 가차운곳에서 거주하는인물로 사정을잘알고 드러간것이듯하다한다

◇新築記念 來六月十五日까지 無料診察藥價半額 校洞入口 樂園町一九三 小兒科 內科 楊在植醫院 獨房入院室溫突完備電光一七五二

## 運動競技

### 延專對佛艦蹴球 明日京城球場서

朝鮮蹴球協會主催의 佛國極東艦隊旗艦『라모피켓』號蹴球團對延專蹴球對抗戰은 明十日午後三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리인데 觀覽은 無料라한다 그리고 同艦隊蹴球團歡迎會는同日午後六時부터 京城驛食堂에서 열리이라고한다

### 올림픽氷上代表 金正淵選手入京

지난二月 獨逸『카르밋쉬·바르텐키르헨』에서 열린 第四回冬季올림픽大會에 出戰하야 最後까지奮鬪한 金正淵君(明大)은그동안 東京學窓에도라와 就學中이든바 鄕里平南江西郡草里面松湖里에잇는 父親의 病患으로因하야 歸鄕하기로되여 昨八日밤車로 入京하야 方今 武橋町八五番地 君의叔父金文鎭氏宅에 滯留하고잇는데 明十日午後三時半京城驛發歸鄕할터이라하며 今九日朝에歸京人事次로 本社를 來訪하야 다음과가튼 所感을 말하엿다 (寫眞은 本社를訪問한金君)

『우리를 聲援하여주신 海內海外의同胞들의期待를저바리고이러타할戰績을 나타내지못함은 오직북그러운感을늣기게합니다』

### 大宮野球團來征

그러나 이번길에 보고드른것이 ……

朝鐵野球部에서는 昨年度全日本都市對抗野球의 强豪全大宮(東京鐵道)野球團을 招聘하야 十一、十三、十四의三日間 京城에서 三回戰을 行하기로 되엿는데 其對陣及日程은 다음과갓다

▲十一日‖全大宮對朝鐵(午後四時半)龍山球場

▲十三日‖全大宮對遞信(午後二時)京城球場

▲十四日‖全大宮對全京城(午後二時)京城球場

### 누루미二世出現

世界의 走神이라고 부르든 누루미選手(芬蘭)는 最近『군나!헤셀드』라는 젊은『런나』를 發見한것을 發表하엿는데『누루미選手는 다음과가튼 所感을 말하엿다한다

『내가發見한헤셀드君은 非常한 速力과 耐久力을 가지고잇서 그가 芬蘭代表로 이번 올림픽大會에 出場하게되엿슴으로『마라손』의 覇權은 芬蘭에 도라올것을 約束하는것이라고 말하고잇다

### 高麗卓球聯盟理事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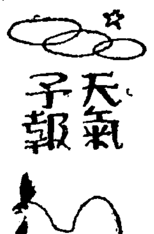
高麗卓球聯盟理事會는 十日午後七時半부터 朝鮮中央靑年會內同聯盟事務所에서 열고다음과가튼 事項을討議할터이라한다

一、聯盟戰開催에關한件

一、卓球講習會開催에 關한件

一、其他事項協議

## 天氣予報



**概況** 低氣壓은 滿洲에 七五〇미리中國天津附近에 七五二미리琉球의 北便에 七四八미리의것이 잇서 모다東北東에 進行中이다 七六二미리의 高氣壓은 日本本州의 東海上으로부터 日本海를거처 朝鮮中部에 펴지고잇다 滿洲 朝鮮及西日本은 降雨가잇스며東北地方은 大槪호리고잇다

**豫告** 오늘밤京城地方은 호리며 혹시는 小雨가잇다 明日도가트며 京畿道全體도갓다

昨日最高 [illegible] 同 最低 [illegible] 今朝最低 [illegible] 今日正午 [illegible]


京城撮影所超大作

朝鮮聲畫史上不朽의金字塔 朝鮮聲畫로서日本進出代表作

洪吉童傳 續篇

朝鮮語全發聲『수파인포—스』日本版

錄音·李弼雨 監督·李銘雨 主演 羅雄·李錦龍 李慶善·金寅圭 李鍾哲

規模의壯大함을자랑하며技術의업청난躍進을歷歷이보여주는空前의大作!

同時封切 上에서 지사가 ……

音影

六月十日封切 團成社



中風 高血壓·神經痛의 原因을究明 今津博士·根本的治療

◆標準血壓 三五歲…一二八 四五歲…一三三 五五歲…一三八 六五歲…一四三 百五十以上은病的 百七十以上은危險

견벽통·두중·건망증·귀울고·현기·동기·천식·변비불면·신경쇠약·아푸면서붓는증·고혈압·동맥경화로돌련뇌일혈이나 심장마비로急死하든지·또는반신불수·혀구부는 중풍등에

이병의원인은술담배·림질매독·변비·편식·신장병·당뇨병·궐냉·과로·심사과로·큰상처를난또는난산등에·혈액이혼탁하야 순환이나쁘고、혈액을정화식히면낫는다 결과불치의병이아닌것이올여젓습니다。

파리약의 今津博士는 전문의학박사와협력하야、굉장한혈액정화제를발견、그복용과 병근원에 적당한양생법을가르켜서、지금까지고치지못한다고하든、수다한난병자를치료하야、전국각방면의중병자로부터굉장한감사를밧고잇습니다。

이런병에고민하는분은 大阪寶塚線三國本町 今津研究所(電北一四五)에가시든지·편지로용태를기록하야 김히문의하시라! 박사가권위잇는연구와 오랜경험에 비치여·병근원과 증상에 적당한 혈액정화료법을 친절히 가르처드립니다。



(規則書送呈) 電醫養成 醫師同様聖業 全國無試驗開業

東京電醫學校直系 朝鮮高等電醫講習院 [illegible]町三ノ六二

萬腫速治 종기에는 한고약 韓氏膏藥 全鮮藥店販賣 本舖 中城韓藥房 京城府苑町九四番地



第一劇場 虎狼の巷 高田稔氏 椿三四郎氏主演 鍾路五丁目 電光一七五番

桃花劇場 六月九日부터大公開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祝祭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 밤七時四十分始映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爆笑劇 로이드의牛乳屋 主演…하롤드로이드氏 아돌푸만쥬氏 헤렌막코孃 ◇PCL超特作全發聲日本版 都會의怪異七時〇三分 監督 木村莊十二氏 主演 中野英治氏 千葉早智子孃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版 西部大活 싸호는幌馬車 監督 잘스비—돈氏 主演 란돌포스콧트氏 캐밧슨드리크孃 麻浦桃花町 電龍二三番

## 血統淨化

### 악질유전병(惡疾遺傳病)의 자손을전멸 당국에서 법률제정에착수

악질유전병을가진 자손전멸하야민족씨(種)를 더욱우량하게하는것은 우생학(優生學)상으로보던지 그밖에의 장래발전상으로보던지 절대로 필요하다하야 내무성(內務省)에서는 「악질유전병전멸법」 제정에착수하야 방금보건위생조사회(保健衛生調査會)에서멸종법(滅種法)에대한 조사를하는한편으로 내무성위생국 구산효일(龜山孝一)사무관을 해외(海外)에 파견하야 멸종법을 연구하는중이다 그리고 세계문명국중발서 실시한 나라는정말(丁抹) 서서(瑞西) 미국독일등인데 그중에도 독일, 나치세가제일적극적이라한다 악질유전병을 가진사람은 자기일신을위하던지 자손을위하던지 민족을위하던지급속히 그병독을 전멸하도록 노력할것이다

# 매독엔 「푸로다ㅣ」로

매독병은 선천후천두가지가잇는대 선천매독(先天梅毒)은 선조상으로 부터유전하야 병독을 바더가지고 나온병이오 선천매독 (後天梅毒)은 남녀간불결한성교(性交) 나그러치아니하면 목욕탕침구 변소 변기(요강)갓흔데서 전염하는 화류병인대 세상에제일무서웁고 지독한병이다 한번걸니면 칠팔대(七八代)나무죄한 자손에게까지 유전하야적악(積惡)을할뿐아니라일신의 비참한최후를 맛치게되는것이다 신이끈어지고 코가떠러지고눈이멀고 목이창이나고 등창이나고 사대육신이쑤시고 머리가빠저문드러지고심하면 뇌매독이되야 천치가되고 정신병자가되며 급기야에 생명을 일케되고만다 독일화류병연구박사의 발표에의하면 세게인류(人類)의 대적은 곳매독이요 우량한 민족의씨를 말니는것도 곳매독이라고하니 참두려웁고 끔찍끔찍한 병이다 이병은 전염된후시기와 체질에따라서 곳발생도하고 몃달몃해후에 발생도한다

◎제일긔매독전염병된지 삼사일 일주일내로 신에 조고만하게 뾰루지가난다 그러나 심하지아니한 사람은 난듯하게어느틈에 업서지기도하고 또신두가 헐기도하고 곰기도한다 역시 일주일쯤되면 업서진다 그러나 곳피로들어가서 전신에 돌아버리는것이다 잘못하면 병이전염된줄 모르고 그냥 내버려두는 일이만다

◎제이긔매독신이나 여자음부에는계속하야 나기도하고 차차가래톳이스고 구미가업고 신열이잇고 골이쑤시고 몸이가려웁고 여기 저기 종기가나기 시작하고 눈이희미하고 머리가 빠지고 얼골에 여드름갓치 돗기도하고 몸이느른하고 목이쉬고 코가헐고 붉고 멍울이스고 하야 비로서 누구든지 잘알게 된다 물론 이러한 증세가 한번에 나는것은 아니다

◎제삼기매독 병독이 전신에깁히깁히들어가서 번성하게되야 연한 뼈까지(軟骨)파먹게되는 고로 코가떠러지고 등창이나고 목이아조쟁기고 목구멍이 뚜러저서 언청이 소리를하고 머리가헐고 눈에백태가끼고 나종에는 멀고 신어돌러빠지고 낭어진물러지고 왼몸이 만창이되고 뇌매독이되어 최후를 맛치게된다 그리하야 자손에게 전염하고 민족을 점점열등(劣等)으로 만드는 무서운 악질이다

이와가튼 증세에의심이잇든지 매독으로 신음하시는분은 푸로다를 쓰시오 푸로다의효능 매독(梅毒) 창독(瘡毒) 태독(胎毒) 습독(濕毒) 선천매독(先天梅毒) 감창(疳瘡) 후천매독(後天梅毒) 매독성류마지쓰(梅毒性僂麻質斯) 약은 환약이오 구갑이거나 위장을 안상합니다

약갑칠원、오원、삼원 오래되고 중한분은 보통병과 다르니 칠원짜리를쓰시오 약은 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문하시오 당일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 지방송료(선금)이면 십오전대금인환이면 삼십오전이오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제일큰벽오양관)

代表電話光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 매독엔푸로다ㅣ를쓰시오

(PROTER)

【가 약】

완고용칠원
중증용오원
경증용삼원

료송방지

선금무료
대금인환
삼십오전

# 大神聖堂의陣容

##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全南光州府本町四丁目六 神崎神聖堂支社

### 市內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
本町二丁目 北島藥房
本町四丁目 木村藥房
鍾路三丁目 第一藥房
仁寺町 富仁藥房
阿峴町 春山藥房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房
黃金町四丁目 南海堂
鍾路二丁目 白楊堂

### 地方代理店

仁川府外里一九〇 仁川堂藥房
忠南天安邑內 徐光年
咸南端川郡汝海津 鶴仙藥房
咸南永興郡宣興面 嚴龍得
咸北漁大津 閔泳灤
慶南鎭海 朴基煥
咸北吉州邑內 壽星藥房

### 特約店

京畿道仁川府外里 中和堂
同 永登浦驛前 淸一堂藥房
同 金浦邑 回生堂藥房
同 始興郡新東面平眼里 李鍾英
同 永登浦 裵振聲
同 龍仁郡南四面鳳鳴里 李相璜
同 水原郡鄕南面發安市 金佑鈸
忠南大田邑大東町四九 朴玎均
同 洪城邑內 李康世
同 成歡驛前安城商店 宋千逸
同 扶餘郡良化面草旺里 高文寬
同 公州邑本町一四七 崔鍾國
全南順天邑金谷里 金禎泰
全北金堤邑內 趙東泰
同 井邑郡笠岩面大興里 陳善長
同 井邑郡七寶面白岩里 李延鎬
同 茂朱郡赤裳面北倉 柳用極
同 益山 金永瀞
慶南京釜線勿禁驛前 大光藥舖
同 咸安郡安義面 崔禹錫
同 河東邑 濟生堂藥房
同 晉州昭和町 大明堂 金三珠
同 第一藥舖
同 金成藥房
同 大黑洋洋堂
同 馬山府 天和藥房 ツバメ藥房
同 馬山府 李鈸秀
同 五行堂藥房
同 蔚山郡靑良面開谷里一六 韓明東
慶南釜山 孫秀格
同 居昌邑 章榮振
慶南 蔚山 朴慶龍
慶南 密陽驛前 松由堂藥房
同 南海 華生堂
同 泗川 金鍾國
慶北軍威郡山城面三山洞二〇六 朴基憲
同大邱府京町一丁目一八 大安堂藥房
同 尙州郡邑外畓里 櫓聖八
同 善山邑本町 金亨變
同 盈德郡丑山面景汀里 金春淑
同 善山邑內 新生堂藥房
同 佛國寺 金觀濟
同 淸道 鄭昉圃
江原道金化郡邑 金化藥房
同 江陵 黃德源
同 原州郡原州面花月里一〇四 金鳳奎
同 金城驛前 文化商店
同 原州郡富論面興湖里 禹在根
同 平康福溪驛前 丸寅商會
同 鐵原邑中里 協成堂藥房
同 洪川郡化村面君巖里 申世均
黃海道載寧 金宗善
同 鷄林 金鷄商店
同 鳳山郡德在面赤城里間垈 李淳芳
同 海州 孔觀五
同 信川郡龍門面福隅里 權五契
同 延白郡彰德里 吳湖福
同 海州 林官浩
同 安岳邑 朴俊鎬
同 載寧郡 朴雲影
平南平壤大和町通 石川赤門堂
同 大同郡斧山面中二里 金鏞容
同 龍川驛前 仝憲朝
同 龍岡 鄭鳳益
同 同 李亨植
同 雲田驛前 春山藥房
平北碧潼 金泓官
同 滿浦線香山驛前 朴採琫
同 龍岩浦農民共生組合 金興澤
同 宣川邑內川北洞 福山婦人商會
同 鐵山郡邑內 安東商店
同 江界郡公北面香河洞 李和松藥房
同 熙川郡邑上洞八五 韓用俊
同 宣川郡川南洞 回春藥房
同 平北新義州 廣世藥房
同 車輦館 東亞藥房
同 定州 胤和藥房
同 鐵山 安東商店
同 雲山 天壽堂
咸南新興邑內 錫安藥房
同 定平郡新上驛前 春起藥房
同 永興郡古寧面三峰里一四七 金允吉
同 豐山邑內市通 義信商店
同 長津郡郡內面上里梅田 姜基順
同 北靑郡下車面萬景市 姜完沈
同 新高山驛前 曾惠藥房
咸北城津港旭町 壽榮堂藥房
同 城津港旭町 曾信堂藥房
間島龍井市大通路 永生堂藥房
咸北淸津府新岩洞 海東藥房
同 城津郡鶴南面禮洞 李炳秀
咸北朱乙驛前 北一堂藥房
同 明川邑明川洞 新盛商店
同 雄基港本町 迎春局
咸南北靑邑內里七六 金裕乾
同 北靑驛前 五六藥房
同 咸興府本町 三省堂藥房
同 元山府南村洞 金元輔藥房
同 元山府廣石洞 東明堂藥房
咸北上三峰驛前 金用根商店
江原道鐵原邑中里 協成堂藥房
咸北雄基上本町 十字堂藥房
同 會寧邑大正通 世一堂藥房
同 雄基邑本町 仁壽堂藥房
同 南陽驛前 松山堂藥房
同 雄基邑本町三五七 信生堂藥房
同 雄基邑本町四〇五 五信堂藥房
同 羅南邑初瀨町一一二 益壽堂藥局
同 城津邑旭町一四五 朴東龍藥房
同 城津邑旭町四一三 萬壽堂藥房
名古屋市南區 平和堂
島根縣美濃郡近見 片岡古吉

## 支社代理店特約店特典大增募

◎全鮮各地에 支社、代理店、特約店을 大擴張하고 今般 다시大特典으로 增募하오니 이조흔 機會를 일치마시고 急先申込하시오 先着者로 決定합니다

詳細는 規定書를 請求하시오 無料로郵送함

特히 支社設置를 歡迎합니다 支社長이되시고 大成功하시기를바랍니다

**特約店以外에는 절대로 화리나특전이업습니다**

# 애쓴보람이업시 땀에녹는분세수

## 녀름단장에는이런비결이잇다

## 그것을몰으면헛수고

사람을 딸아서 단장하는 방법이 달려야 하지요만 철을따라서도 또 단장하는 방법이 달려야 합니다. 봄에는 봄에 맛는 명낭한 단장이 필요하고 가을에는 가을에 맛는 청초한 단장이 필요한것과가티 녀름에는 녀름대로 독특한 단장을 하서야 합니다. 그러나 단장하는 편으로 논지한다면 녀름처럼 그러케 고약한철은 업습니다. 조그만해도 일껏ㅅ 수고해서 단장하야 놋것이 묻혀질뿐이 아니라 단장 그 자체도 좃치럼해서 언뜻빗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염려치 마십시요. 지금 여긔서 녀름단장의 비결을 공개키로 하니까요.

미트로 크림을 바르지 안하면 아모것도 다 안되는줄로 아시지오만은 크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장을못 하실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몬저 조흔 왜비누로 얼골을잘 씻은뒤 화장수를 바르고 그화장수가 마르지안할동안 분을 칠하고 다시 또한번 화장수로 살짝 묻지르는동시 입살이며빰이며『베니』를 칠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케까지 하야서 크림을 바르지안활것이 무엇이냐 하면 녀름단장에는 크림이 아조 대긔가 되는 까닭이올씨다. 첫재로는 크림때문에 단장이더쉽게문허날뿐이 아니라 둘째로는 크림때문에 얼골도 더 검게 됩니다. 얼골이 잘걷지 안는데는 련백분(煉白粉)이 조흐나 바다ㅅ가 가튼데서는 보기가 그다지조치 못합니다. 빰에 베니를바르는 것도 걷지 안는 예방이되니 그것은 붉은빗이 검은빗과한께 자외선(紫外線)을 흡수(吸收)하야 버리기때문이올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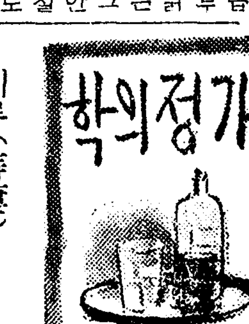
의복은 물론 가벼운 것이 조흔데 빗갈은 힌것 내지 연한 빗이 조습니다. 조선서는 녀름에 회색옷을 잘들 아니입으나 치치치 안한 회색옷은 퍽 참하야 보입니다 그리고 얇은 녀름옷에 땀이 배는 것도 나쁘고 또 빈약한 육체의 굴곡이 들어나는 것도 나쁘니까 까제로다가 가슴을 감아 두는 것이 해롭지 안습니다. 이 방법의 부대한 사람에게는 부대한까닭에 조코 파리한 사람에게는 파리한 까닭에 조습니다. 그러고 녀름단장에 업서서 안될 것은 향수입니다. 다른철보담 특별히 향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고 향수를 쓰는 조건으로 무엇보담도 딴 화장품과 가튼 계통을 취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 냄사 저 냄사가 서로 달려서는 재미적습니다. 그 이외에 또 한가지 조건으로는 귀바키뒤나

옷속으로 떨어 트리어 은은히 냄사를 피우라는 것입니다. 넘어 강렬하게 냄사를 피워서는 그여시 재미업습니다.

×

녀름에는 단장도 가벼운동시 거름거리도 가벼워야 하나발이 무거워 잘 그러케 되지 안습니다. 그러니까 까제로발을 살작 감고 조금 놈직하게 발을 고이고서 자야합니다. 그러고 또는 겨드랭이에 땀이 배어 옷으로 번저나오는것도 큰일이오나 그것을큰 본적으로 어떠케 할 도리는 업습니다. 단지할간파우더를발러서 옷으로 심히 배어나오지나 안토록하는 수박게는업습니다.

## 학의정가



### 치루(痔瘻)

문 저는삼십일세의 남자온데 이년전에 치루로 수술을하엿는바 그후 완전히 낫지안하오니 가정치료법을 하교하여주시면 고맙겟습니다 (元山 一孤兒)

답 치루의 가정치료는 절대불가능합니다 다시 철저한 근치수술을바드시고 전신료법에 류의하야 충분영양과 일광욕을취하십시오 (城大小川外科醫學博士金晟鎭)

### 골수염

문 본인은 금년이십오세의남자이온대 금년일월에 돌연히 왼쪽 넙적다리 중앙부가 빼근하게 압퍼서 거름을 잘 못것게 되야 그곳에 단단한 멍우리가 생기며 부어서 이십여일이나 누엇다가 의사에게 보인즉 종긔로 알고 찜질을 하라하여 그라하엿드니 멍우리도 풀니며 점점나어서 단이게되엿스나 그후 늘다리가 빼근하고 상추리가습하야 퍽 거북하오니 무슨병이며 치료방법을 자세히 곳 하교하여주시옵기 바라나이다 (楊平郡古邑內 一讀者)

답 진찰아니하고는 판단키어렵습니다만은 보통 종긔는아닌듯합니다. 골수염으로 나슨후에도 속이알프고 거름것기에도 빼근하다하오니 혹 뼈에병이잇지아니한가 의심됩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가정치료는 어려웁고 수술을바더야 할것이오니 근처큰병원에가서『렌트겐』검사와 자세한진찰을 바더보십시오(醫學博士 金晟鎭)

### 유두함몰

문 저는 처녀때부터 젓꼭지가 나오지를 안하엿는대 지금 생남을하여 젓을 먹이고저하나 가 빨지를못하고 참으로 고롱중이오니 엇지하면 조켓습니까 (神戶 답답女)

답 일종의긔형이올시다 처녀긔에 함몰하얏든 젓꼭지라도발육따라 차차나와서 수유긔(授乳期)에는 별고장이 업서지는것이 보통인데 귀하와가티 분만후까지 그대로나오지아니하는것은 정형수술로 교정하여야합니다. 수술밧기전은흡유긔(吸乳器)로 자조젓을 짜내서 어린애에게 먹이고 젓이만히 고이지아니하도록 주의하십시오 (城大小川外科醫學博士金晟鎭)

# 어린애의질투심

## 어데서생겨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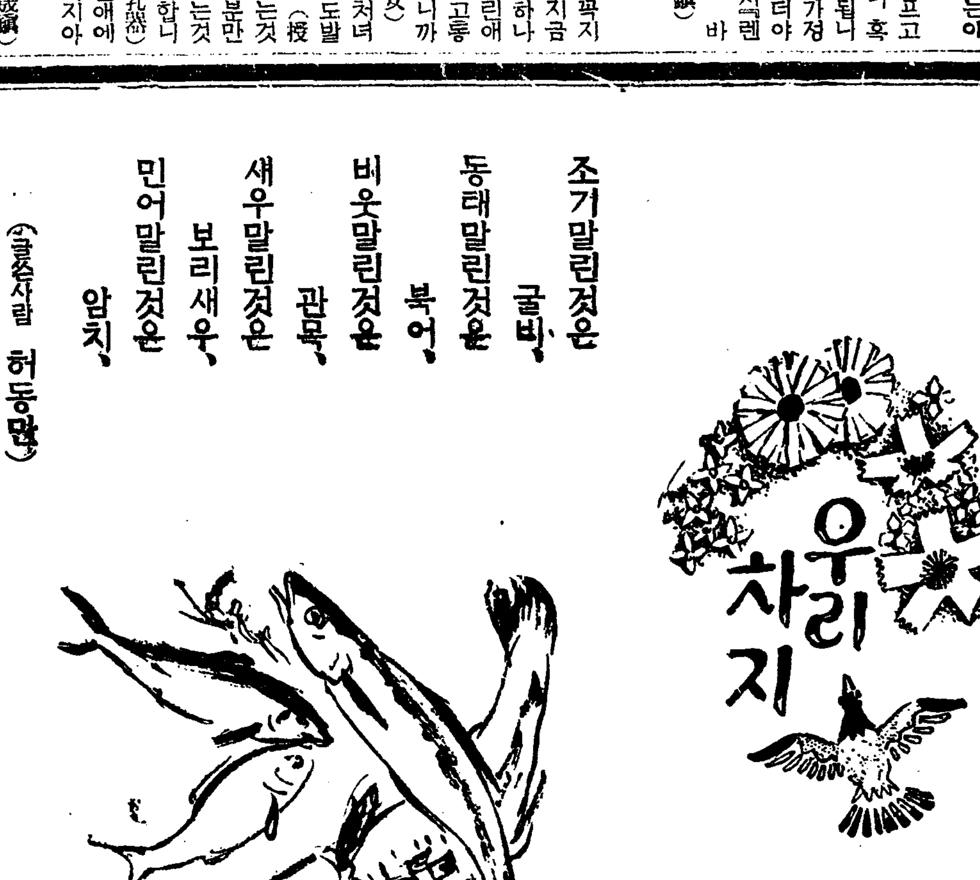
### 어린애 만흔 댁에서는 어머니가주의해야할일

어린애들의 질투심은 엇더한 경우에 이러나느냐하면 이때까지는 제하나에게만 쏠녓든 주위의 사랑과 귀염이 다른데로 옮마갈때 만히생기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어린애들이 제아우가나면 갑작이 질투심이 생기는것입니다. 그래서 트집을부리거나 응석을하거나합니다. 이아것이 심해가면 집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제혼자만 바드려고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다른 아해에게 말을 하면 비끼기도합니다. 이러한 감정이자라면 나중에는 정말 질투를하게됩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질투심은 엇더케하든지 생기지안토록 하지안어서는 안됩니다. 첫재 자녀들에서 어느한아해만 사랑하는것은 아주못쓰는일입니다. 이러케 한아해만 넘우사랑을하면 다른아해에게 조치못한영향을주는것은 말할것도업고 그아해를 사랑하는 애정이 다른데로 쏠니게될때는그아해는 질투의 감정을가지게되는것입니다. 흔히 아해들을 귀여워하는 어머니도새로 어린애기가 나면 그애정을 어린애기에게로 옮은때문에 큰애가 어린동생을 미워하고 심하면 때리는수도 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어린애기가 날때쯤되거든 미리부터 어린애기는 큰애기보다 더귀여워해주어야된다는것을 잘 타이르기도해서 이질투의 감정이 이러나지안토록 훈련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부모에게서 넘우사랑을 만히밧게되면 그때는 몰나도 그조부모가 도라가신뒤에는 이때까지 저를 사랑해주든니가 갑작이 업서진만큼 어린마음에 일종의 고독한 생각을 늣기면서 질투심을 갓게되는것입니다. 이럴때는 어린마음을 잘 위안해주어서 넘우 고독하게하지안토록 하는것이 좃습니다.

이상 터려서말슴하면 어린애를 넘우 귀여워하지말 것과 또는 여러아해를가진 가정에서는 히특 한아해만을 사랑하지말고 보통 다 갓흔 정도로 사랑을 해야합니다. 그러치아니하면 이것은 어린마음에 질투의싹을 트게할뿐만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생활을하는데 가장부적당한 성격을 가지게 만드는것입니다. 어른이 되여서 질투심이 만흔사람을 조사해보면 대개는 어렷슬때의 가정에서 자라나기를 이러케 자라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 우리차지




조기말린것은
굴비,
동태말린것은
북어,
비웃말린것은
관목,
새우말린것은
보리새우,
민어말린것은
암치,

(글쓴사람 허동만)

童話

# 바보수남이 ②

崔秉和

『아, 요놈봐라……저파리가 하라버지 살을파먹으면 하라버지 대가리가 구녕이숭숭 뚜려지겟지.』하고생각하엿습니다.

수남이는 그러지 불여듯 어머니가 무법례는 잡아업새야한다―하고 말슴하신것이 생각이나서 하라버지대머리를 가지고잇든 부채로 힘껏 갈겻습니다. 파리는 즉시 날러가버리고 하라버지는 머리가웅북 드러갈만치 애시 어더마젓스므로 성이가 ……

『이 요놈이 웬녹인데 어른을 때려!』하드니 담배대꼭지로 수남이 머리를 연겁허세번이나 따리엿습니다. 그래서 수남이는머리에다가 커다란혹을 셋이나부치고 엉엉울면서 집으로 도라왓습니다.

『너 또 웨울고오니?』하고어머니께서 무르시엿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수남이

『너는 왜, 그러케 못낫니? 암만 파리가 안젓드래도 남의머리를 떠리군다나 로인의머리를 채로 따리는법이 어듸잇단말이냐? 그런때에는 붓채질을 해서 파리를날려보내는 법이란다』하고자세히 아르켜 주엇습니다.

이러한일이잇슨후 몃칠뒤에 어느날밤 이웃동리에서 별안간 불이낫습니다. 불이낫다는 말을드른 수남이는 즉시 뛰여갓습니다. 그리고 불에타서 씨러지는 집웅자미잇게 바라보고잇든데 그때마츰 큰불똥이 바로 자기엽헤잇는 초가집에가 떠러젓습니다. 사람들은

『불야! 불야!』하고 떠들면서 물을길러왓습니다. 그때 수남이는 불연듯 어머니에게서드른 이약이가 생각낫습니다. 그래서 붓채를 피드니 활! 활! 초가집불에다가 붓채질을하엿습니다. 얼마뒤에 어떤사람들은

『이자식! 남은 눈이뒤집혀서 죽겟는데 이게 무슨짓이란말이냐?』하고 몹시떠미렷습니다. 수남이는 고만 빗틀빗틀 뒤로 물너 가다가 돌뿌리에가 걸려 너머저서대가리가 터젓습니다. 그래서 수남이는 피투성이가된 얼골을 해가지고 집으로 도라왓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머리가 터저가지고 도라온 수남이를보시더니

『너 또 무슨 일을 저즐넛고나?』하고 무르시엇습니다. 수남이는 대가리 터진 이약이를 다하엿습니다. 이이약이를 드른 어머니께서는

『너는 왜, 그러케 못낫니? 그런때에는 물을끼언저서 불을꺼야 하는법이란다.』하고 아르켜주엇습니다.

또며칠후엿습니다. 수남이는어느대장간아를 지나가게 되엿습니다. 수남이가 안을드려다보닛간 숫불이 새빨갓케 타오르고 불똥이 펄펄튀엿습니다.

『아! 이거 큰일낫고나. 얼른물을끼언저주어야하겟다』하고 이러케 생각한 수남이는 급히 뒤겻우물에가서 물을 기려다가 새빨안숫불에다가 끼언젓습니다. 그여메서 일을하고잇든 대장장이는 성이잔득나서

『이자식이 밋첫나?』하고 수남이를 바그로 끌고나가서는 발길질을해서 내보내엿습니다. 수남이는 또 엉엉울면서 도라왓스므로 어머니가 그까닭을무릿습니다. 수남이 이약이를드른 어머니께서는

『아, 참 너는 왜, 그러케 못낫니? 그런때에는 다른사람처럼 큰일낫치를 가지고가서 도아주면 좀 고마워하겟니. 물을 젼저서 불을꺼놋스니 조와할 사람이 누가잇단말이냐?』하고 말하엿습니다.

그런일이잇슨지 닷새되는날이엿습니다. 수남이는 길한복판에서 두사람이 싸호고잇는것을보앗습니다

『옹! 어머니가 말씀하신데로 도와주어야하겟다』하고 급히 집으로와서 쇠몽치를 가지고나가서 싸호고잇는 두사람의사이로 드러가서 쇠몽치로 두사람을두들길려고 하엿습니다.

싸호고잇든 두사람은 깜작놀라서 싸홈을끄리고 두사람이수남이를 두들겨주엇습니다. 수남이가 몹시 어더맛고 집으로도라오것을 어머니가돗고

『참 너는 할수업는 천치로구나. 싸호는사람을 쇠몽치로 따리다니…… 그런때에는 싸홈을 말려야 하는법이란다.』하고어르켜주엇습니다.

어느날 수남이가 어듸를 가라니깐 검정개와 흰개가 큰싸홈을 하고잇엇습니다.

수남이는

『그럿다 싸홈하는것을 볼때에는 사히에드러서 말려주는법이라고 어머니께서말씀하시엿다』하고 짓고물고싸호는 두마리개틈으로 드러가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을려고 하엿습니다.

그러닛간 잔득 성이난 개들이라 수남이에게덤벼드러서 손발할것업이 닥치는대로 물어뜨더습니다.

수남이는 여러군데를 물리고 또옷을갈갈 찌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업혀서 집으로 도라왓습니다. 그리고 오래동안 병이들어서 자리에 누어잇게 되엿습니다. (끗)

連載小說

# 아카시아(十)

安碩柱 作
金熊超 畵

영섭의 안해가 해산을하자 그날죽어서 어린아이는 암죽으로 며칠을 살리엿스나 꼬치꼬치마름으로 유모를대엿다

영섭의 늙은어머니가 몸이나 성햇스면모르되 중풍병으로 여러해고생하다가 꿋내 반신불수가되여 안진뱅이가 되여버리니 만약이이가 늙엇스나 성한몸이 되여서 며누리의 해산구원을할햇스면 죽지안헛슬지 모르는일이요 또 어린아이도 암죽을먹이나마 아모탈이업섯는지 모른다 어린아이는낫차 간기로 시름시름하는데 정은업스니 영섭은 압길이캄캄햇다 이곳저곳수소문해서 유모를하나 구해오니 밥짓는식모월급주랴 유모월급주랴, 어머니에게 약을대랴 이식구들을 먹일랴 제몸감당마하기

에만 똑알마진 월급으로 근근히사라오자니 식모도 룰룰, 유모도 룰룰 여기다가 식모와유모가 배가마저서 반신불신된 노인을 은근히들볶고 동오줌십부를도하기실혀서 그대로 어쩌거나 내여버려두기때문에 영섭이가 퇴사를하야 집에나오는때 영섭이가 순수이것을지키기도하엿다 그러니 식모나유모도 먹고살기위해 그런노릇을한디기로 남의집일은이 동오줌바다내는것이야 조흘리잇스랴 그래서 식모는 한달에도 두번세번바뀌는때도 잇섯스나 두번째드러온 유모만은 늘―찡찡을면서도 뉘아이든 제젓을먹여기르니 정이들고 또어미업는자식이라 가엽기도하야 제친자식가티 길러왓다 그래서 유모의젓꼭지가 어린애의입에 길이들자 유모는 그애가 귀여운생각이나고 그아이는 그유모의 젓꼭지까지 만적거리게되엿다 그런까닭인지 배리배리말러가든 아이가 토실토실하게 실이올랏스나 간긔가 심하야 어느때는 밤을다새는데는 유모도 씽증이낫다

그러나 유모는 젊엇다 젊고도 어듸지 녀자다운 고흔때가 자르르―흘럿다 사실이녀자는 신녀성이아니라고 소박을마저 쫏겨나서 이길로드러섯지 퍽양전해 보히는녀자다

그녀자는 젊기때문에 영섭의 신세를 생각하고 자긔의 신세를 생각하고 그두사람의 신세를 한데 견주어생각하고는 은근히 영섭을 위하야 측은하고 그리고 남몰래혼자 사랑해왓다 그러나 영섭은 자긔에게 갓사한생각은 가지고잇지만 자긔를 그러케 애호하게 생각하는것갓지는안헛다 그래서 혼자 꿈꿈히 제신세를 생각하고 우는때도잇다

그런데 요사히 식모가또나가게되여 유모가 밥을짓는등 집안을 치우는등 하기때문에 어린애의 젓먹는시간을 마초지못하야 모라서 젓을 만히 먹인것이 그아이의 간긔를 벗처성하게되엿다 어제저녁에는 너무도 그간긔긔운이 심하야 까무렷치기때문에 영섭이가 밤중에뛰여나아가서 약을사먹이것이 효험이잇는지 오늘아츰에는 눈을말동말동뜨고는 제아비의 코를쥐고 흔들기까지하엿다

유모가 그아이가 죽으면 자긔의 큰과실이 될가봐 애를태우다가 저윽이 그아이가 회생을하나 안심이되여우섯다 이때에 영섭이도 마조보고우섯다 유모가 처음으로 영섭이와가티 바라보고 웃게된것이다 여기에 유모의 깁븜이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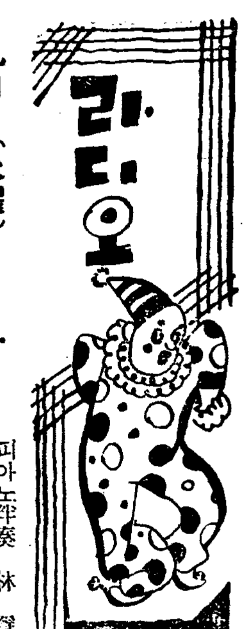
그러서 그는 영섭이가 나아간뒤에 그아이가 제아이나 다름업시 귀애서 안고둥게둥게를 하면서 왼종일혼자 즐거워햇다

그러나 오후네시쯤부터 그아이는 다시 간기가 시작되엿다 그래서 유모가 혼자 쩔쩔매며 애를 태웟다 기름에 파ㅅ뿌리를다려서 먹이는등 별짓을 다해도 아이는 눈을뒤집어쓰기만한다 유모는 혼자 엉엉울고 도시펏다 아모도 업는집에 어린애만 혼자두고 나아갈수업서서 동리집 녀편네를 불러서 동리한의를 불러오라하엿더니 가기실혀서 간신히 갓다오는것이또 그의사가 업다고한다

이래서 유모는 쩔쩔매엿스나 어린아이는 손끗발끗이 새파래질뿐이다

◇

영섭이가 자긔집아페 다다럿다 집에서 어린애에 소리는업스나 흑흑늣겨우는 녀인의소리가들려왓다




## 九日 (火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
一、齊唱 까막잡기 二、齊唱 누나와동생 三、齊唱 동리의원 四、獨唱 자장가 五、齊唱 맹맹 六、獨唱 물새 七、齊唱 은행나무아래 八、獨唱 자장가 九、齊唱 대장간 十、獨唱 南山山路 十一、齊唱 하늘아래저쪽 龍山公普生徒
피아노伴奏 林鍾泉
바이올린伴奏 李桂成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李明世
◇同八時 講演『文化와職業病』 醫博 吳一承
◇同八時三〇分 執杖歌外一、執杖歌 二、小春香歌 三、京西巨里 四、博物歌 諸牧丹 李竹葉
◇同九時(東) 빠이올린協奏曲 빠이올린과管絃樂 第四、D短調 뷰―탄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鄭淵 寶舟 指揮 니콜라이·시페르블라트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太平 二、唱劇調 沈淸歌中皇城옥나가는데 朴初月 鼓手 [illegible]

###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偉人이야기 東京放送童話研究會
◇同六時二五分 (東)스포츠講座 加賀一郞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黑正岩
◇同八時 (東)謠曲 寶生新外
◇同八時三五分 常磐津 常磐津今勞外

## 十日 (水曜)

◇午後〇時五分 名作小說朗讀『동Q의失戀』―李石薰作― 安○和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時間을잘利用합시다』 金興濟
◇同六時三〇分 兒童劇『王子와惡魔』一景 百合어린이會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講演 運動과競技 ·李仁圭
◇同八時 記念講演 時의記念日에對하야 京城府社會課長 金永祥
◇同八時三〇 伽倻琴倂唱 一、短歌 靑春夢 二、唱劇調興夫歌 李素香 鼓手 韓成俊
◇同九時 男聲四重唱 延專四重唱團
一、질거운人生……딱스編曲 二、물네방아……애슈포드作曲 三、산양노래……딱스作曲 四、들장미……딱스作曲 五、南方의멜로듸…포스터作曲
第一테너 李仁範 第二테너 毛麒允 第一빼―스 金道集 第二빼―스 尹弘基 피아노伴奏 A、L뻭커
◇同九時三〇分 一、오조 二、뒷염불 河龍南 金壽男

###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英語講座 花園兼定
◇同一〇時三〇分 (東)婦人講座
◇午後〇時五分 浪花節 京山天風
◇同二時 家庭講座 田中德太郞
◇同六時 이야기 宮地政司
◇同六時二五分 基礎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二〇分 日滿交換放送
◇同八時 (東)피아노獨奏 平野미도리
◇同八時一〇時 (大)獨唱과合唱 獨唱 武岡鶴代 合唱 大阪放送合唱團
◇同八時二七分 (東)立體漫談 藤原釜足外
◇同八時五〇分 (東)箏曲 山勢松韵外
◇同九時五分 (東)長唄 芳村伊四郞

## 十一日 (木曜)

◇午後〇時五分 小春香歌外一、小春香歌 二、船遊歌 三、遊山歌 四、제비가 孫瓊蘭 張香蘭
◇同三時一四分 衛生講演『疾病과營養과의關係』 世專病院 趙東秀
◇同四時三十分 野球試合實況『鐵道對全大邱』―龍山그라운드에서―
◇同六時三十分 讀方指導(敎育레코―드倂用)(一) 醫專敎授 鄭寅燮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科學講演『海中植物』 培花女高 李德鳳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三十分 誦書와詠詩 一、心性圖 二、長篇 林炳駿
◇同九時五分 孤獨의怨恨外一、孤獨의怨恨 二、가간이打鈴 三、제격歌 四、春睡歌 五、悠悠別恨 曺松岡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九時三〇分 映畵物語『鄕愁』 柳寅晟

###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佛語講座
◇同一〇時三〇分 (東)家庭講座 丸山順太郞
◇午後〇時〇五分 (東) 라듸오·멜로듸 무랑·루주
◇同二時 家庭講座 犬山喜一
◇同六時 新日本音樂 西村靖琴社一行
◇同七時三〇分 講演 國富信一
◇同八時 日蝕 (東) 淸元 淸元壽美太夫外
◇同八時三〇分 (東) 室內樂 [illegible]
◇同八時五〇分 (大) 浪花節 廣澤虎造

★曆★

六月十日(水) 建癸巳四月小(廿一日) 癸亥·水·壁·執
●祭祀에宜함
●小滿二十一日(節初一日)
●芒種六日(舊十七日)

專賣特許 藥用크림 파파인酵素應用

여드름·죽은깨·기미를 빠지게하는

파파인酵素의强力無比한脂肪分解作用이活潑하게作用하도록特殊한配合이되어잇슴으로써惡性의여드름, 부룸이라도어엽부게溶解되며新陳代謝의作用으로때가되야떠러지며, 추한여드름구멍을남기지안코癒潤한살결이된다。

× ×

죽은깨, 기미, 볏꺼름은, 皮下에色素가沈着하야생기는것이다。アモンパパヤ는强力한浸透性의活作用으로色素의解離作用을漸進的으로行하며, 新陳代謝가旺盛함으로서, 그낫는順序는至極히自然的이며何等의副作이업고어엽부고, 부드러운살결이된다。アモンパパヤ가評判이놉흔最大理由이다

× ×

右와가튼特장한美容效果가アモンパパヤ한甁으로될뿐아니라, 살결을潤끼잇게하며彈力을回復식힘으로써, 白粉下가必要업스며, 더욱히가장自然的美를엇게된다、구레무의香氣은南國情緖가떠오르는高尙한것으로一甁마잇스면二個月以上이나使用하는經濟的으로더업는藥用구레무이다。

アモンパパヤ (아몬파파야)

▲定價一號 一圓三十錢
▲二號强度 一圓八十錢
藥店·日用品店·化粧品店
데파―트·各雜誌社
代理部에잇슴

封筒에二錢切手를너허申込하시라

팜푸레트와實物見本進呈

東京市神田區松住町十二番地
株式會社 杉田商店
電話下谷局 六七〇番
振替東京七八四六一番

# 一隨筆一 文學人의觸感 (5)

蔡萬植

## 我觀國際風景【1】

『戀愛하는 사람사이의 約束은 國際條約과갓다』

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놈을 뒤집어서

『國際條約은 戀愛하는 사람사이의 約束과갓다』

고 해도된다

나는 史家가 아니라 잘 모르겟스되 내常識範圍에서만 본다면 제게 必要가 잇슬때에 條約때문에 할일을 못한 例는 別로 업는것갓다

그런中에도 그模範生은 獨逸 그리고 요새의 伊太利다 伊太利도 두번째가부다

◇

몃나라가 모혀서 條約을 맷는다 國際聯盟인지 하는것도 그러것의 덤치큰놈이다

侵略을 하지말고 무얼 어찌고……이러케 서로條約을 맷는다

그러나 條約을 맷는 그當場의 그들의 心中은 決코

『이 條約을 내가 꼭 직히리라』

는것은 아니다

『다른나라더러나 직히라고하고 나는 인제 다急하면 안직히면 그만이다』

이런 엉뚱한 딴배장을 가지고들 도장을 꾹꾹 찍는다

그래노코는 結局 눈치빠르고 잘난놈이 먼점 條約을 犯해버린다

『白耳義? 中立國? 그런것은 생각해서 무얼하노? 엽핏 처부시고 드러가서 爲先佛蘭西를 때러뉘고 그담에 英國과 露西亞를 때려잡으면 그때는 내天地인데 그때에 어느놈이 나더러 웨 中立國白耳義를 때려주엇느냐?고 是非할 당자아들놈이 잇슬텐가?』

저거바 글세 白耳義가 鐵城을 쌋코 武裝을 하지아니햇서? 中立國이 왜그랫서?……

그게 우리가 처드러올줄 짐작하고 한짓이아니야?

그러니 中立國을 처서는 못쓴다는 國際公法을 爲先 自己네自身부터 밋지아니하는거가 아니야?』

鐵의 吃咋아페는 鐵의 對抗이 잇슬따름이지 國際條約이나 國際公法가튼것은 발사 혜 때만도 못되이는것이다

或이 가로되

『그것은 네 偏見이다 다 보아라 獨逸이 그러케 殘忍無道하게 國際公法을 無視햇기때문에 戰後 벨사이유ー會議에서 그만큼 더 罰을 밧지아니햇느냐』

고

그러나 나는 일때까지 벨사이유ー條約이 理想主義的 十 數箇條의 國際公法 … 라는 말은 듯지못햇다

또 그뿐아니라 獨逸이 鄰大陸 벨사이유ー條約을 제법 직히지를 아니햇다

또 伊太利는 眞一 公正한 눈으로본다면 背德漢이엇다 三國同盟에 드러가지고도 獨墺를 背反하고 聯合國側에 加擔햇스니까…… 그래서 그背約의 德으로 戰後 戰勝品의 一部分을 어더먹고

伊太利가 蘇阿里나 水鐵里의 共同墓地에 수두룩하게 파무처잇는『口實』보다도 더엉터리업는 口實을 작만해가지고 다만 한개 아프리카에잇는 검둥이 獨立國을 잡어먹엇다

나는 當然以上의 當然이라고본다

伊太利는 아무래도 땅이좀 잇서야할 形便이다 또 戰爭도 좀 해야만 할 切迫한 事情이잇다

그런데 英國더러나 佛蘭西더러나 땅을 좀 小作으로든지 自作農을 創定해서든지 달라고해야 주지아니할것이다

英佛은 아프리카에 그 수태만흔 땅을 차지하고잇스면서도 남이야 죽건살건 모른세기다

그러니 內容으로는 벌서 英佛其他가 단물을 빼려먹고 잇슬망정 形式만흔 獨立國이니 어 놈 집어삼켜도

『왜 내땅 먹느냐?』

고는 是非를 못할것이다 되엇다 집어삼켜라 그래서 삼켯다

# 六月創作評 【三】

## 社會的所産인罪惡에對한 作者의義憤과道德律

朴英熙

### 『春蠶』 崔仁俊作 (朝文六月號)

이作品은 어느 가난한 農民生活을 그린것이니 아들 夫妻는 苗板에 雜草를 뽑라 주러 나가게 될때, 어머니는 뽕도업시 누에를 치느라고 고생하는것을 그린 作品이다.

近者에 農村을 題材로 하는 作品이 만히 創作된다. 그런中에 이作品은 나의 好奇心을 만히 끌엇다. 휘날리지 안는 筆致, 注意에 注意를 다해서 誠心으로 무엇을 表現 하자는 意志가, 그 整頓된 文章에서 나타나 보인다. 作者의 沈着한 態度는, 또한그의 眞實性을 말하는것이려니와 그의 이러한 努力은 作家로서 依例히 가저야 할 要素라고생각한다.

農村의 늙은 어머니의 性格 順從, 義務, 忍耐, 頑固한 信念이 비록 짤막짤막할망정, 어느程度까지 遺憾업시 表現되엿다 깐깐한 방구석에서 기르든 누에를 觀察한 義纛先生의 皮相的 觀察이나 뽕을 못먹어서 죽어가는 누에를보고 憤然이 이러나는 아들이나, 各各 職業과 本能의 發露려니와, 누에 기르기에 極度로 衰弊한 늙은어머니의 卒倒에 이르기 까지, 어머니의 迷信에 對한 信念을 表示한것도, 자미잇는것이다. 그러나 색한데가 그다지 업다. 늙은어머니가 아들이 憤然이 이러나서 기른 뽕을 한부대 훔터온일에 對하야 作者는 어떠한 道德觀을 가젓는가? 淳朴한 農民으로서 뽕을 盜賊해온 일에 對하야 아모러한 良心上 苦悶도 업시, 正規的 社會生活속에 埋葬하여 버렷다. 일즉이 過去

新傾向派 文學에서 그런한 結果가 만헛스니, 그러나 이것은 오즉 撹亂된 道德觀의 暗影에 不過하려니와, 社會的 機構에서 생기는 온갓 罪惡은, 作者의 義憤과 正義感에서만 結論 하거나 解決 되기는 甚히 어려운일이다. 『짠ㆍ발짠』의 犯罪가, 『라스코ー니코푸』의 犯罪가, 한가지로 社會에 提出되엿다. 그러나 그것은 各各 一定한 道德觀의 基礎下에서 表現 되엿다. 不道德한 事實을 道德的인 體系속에 消散 시키어 버리려고 할수는 업다. 만일 그러타면 人生의 生活上, 苦悶과 煩悶과 不幸과 悲哀가 一瞬間에 終熄 할수 잇슬는지도 모를것이다. 그러케 쉽사리 作家의 義憤만으로 解決 할수 잇는것이라면, 作品도 또한 終焉을 告 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過去 新傾向派作品에도 道德的 基準이 아조업섯든것은 아니다 아모리 義憤과正義의荒唐한 表現이라 할지라도 道德觀이 缺如되엿든일은 업섯다. 이 作品에서 그젊은 農夫의 犯罪事實이, 或은 傍系의 些少한것으로 생각할사람이 잇슬는지도 모르나, 이 作品의 主要한 것이 그 犯罪事實이라고 나는보려고 한다. 늙은어머니의 뽕기르는것이, 即 뽕도업시 누에를 기르는 이 가난한 농부의 慘憺한 生活이 主題이매 뽕을 盜賊해온 그것과, 그리로부터 表現 되여야할 苦悶과, 또한 生活의 指示──即 道德觀의 基準이 重要한 生命이라고, 나는 이作品에서 생각 하엿다. 그런데 이作品에는 그것을 아조 等閑視한것갓다. 이것은 다만 이 作品을 읽을때에 感得된 나의感想에 不過하니, 勿論 絶對的은 아니지만, 如何間 누가 읽든지 그러한것을 看過하지는 안을듯하다.

### 『香氣』 安懷南作 (朝文六月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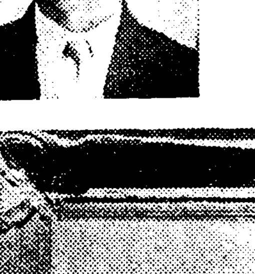
氏는 身邊小說家로서 일홈이 놉흔듯이 들엇섯는데 이作品도 氏의 身邊小說이듯 십다. 小說이라기보다도 新婚夫婦의 多情한 談話를 忌憚 업시 그린小品이다. 너무나 主觀的 情緖의 끌려서 사랑하는 안해의 등에 얼굴과 코를 대고는 青春의香氣를 맛고잇다가, 유도화, 선인장, 석류, 옥잠화, 월계수, 난초 모란等의 香氣가, 無色하고 無償할까보아서 念慮된다.

人生의 青春의 香氣를 謳歌하는것이, 한때의 好事려니와, 氏의『香氣』는, 人生의 祭壇아페 青春의苦悶과 人生의 煩惱를 태우는 香氣가 아니라, 纏綿한 젊은 武士의 번적이는 칼끄틔 榮華와 가티, 虛榮과 寶氣가 混合된 어린 戀人의 픗내나는입술우에서 방울 방울 떠러지는 『키스』의 香氣라고 나는생각하고 십다. 身邊小說이니 모다事實일것이라, 내가 敢이 그眞否를 가릴 必要가 업것스나, 이왕事實일진대, 좀더 深刻한 事實, 좀더 淨化된 對話가 보고시펏다. 비치 힐진대 白雪처럼 희고, 香氣가날진대, 丁香이나 薔薇花처럼 낫스면하는것이 人間의 常情이라면 내가氏에게 좀더 深刻한『香氣』를맛게 하여달라는것도 아마는 無理업는 常情 일듯십다.

小說이라기보다는 너무나 詩的이고 詩的이라기보다는 너머나 散文的이다. 不過한 小說家의 生活이 絶望되지 안코 픗다운 안해의 뚜렴무렴 피여올는 肉香속에서 慰安과 信念이 자라며 귀여운어린아들을 나흐매 一層더 寂寞한 歡喜를 부르지지면서 自己의 希望과 成功을 自祝하는 이小說에는 아즉 안개와 가티 哀愁가 얇게 덥히며 담모롱이에 외로히 서잇는 채 꼿송우리처럼 希望에끌고 잇는 一幅의 生活을 그리며 告白 하엿다. 氏는 人生의 生涯의 第一線에서 第二線을 바라보고 懷疑와 憧憬하는것을 그대로 表現하려는듯 하엿다. 少女的 氣質을 充分이 發露시킨 作品이다. 感傷과 興奮이 한데 얼크러진 作品이다.

남은향기……德壽宮芍藥

## 孫日峰氏個人展



지난數年間 朝鮮畵壇에서 자최를감초듯이 보이지안튼孫日峰氏는 그동안 東京에서斯道에 精進하다가 도라와 來十二日부터 三日間 太平通來青閣에서 個人展을 열게되엿다 氏는慶州出生으로 京城師範在學時에 數次鮮展에特選되엇고 東京에건너가 東京美術學校에 다니면서 帝展에 入選되엿든일도잇는才分만흔畵家이다。

寫眞은 氏와氏의作品『獎忠壇風景』

## 朝鮮俚諺에對하야 ─그蒐集과整理의必要性─ ③

金思燁

十七世紀英國著作家 제임쓰 호ー웰은『俚諺에는 三要素가잇스니 簡潔(Shortness)意義(Sense)鹹味(Salt)가 곳그것이다』라고하엿다 俚諺이 大體로 形式이 簡短하며 內容도 普通談話와가티 凡然히지거리여버리는말과는 달러 獨特하고 奇拔한 意味를 갓초우고 그우에다 聽者로하여곰 기피 感銘을주고 刺戟식힐만한 一種의 辣味가 업서서 안될을 生覺할때 호웰이말한 三要素는 至當한말이라고 할수잇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俚諺의 定義로하기는 實例에徵하여 檢討해볼때 許多한 矛盾에 逢着하게되니 처음簡潔에對하야 生覺해보아도 短小簡潔함이 반다시 絶對的要件은 아닌듯하니 俚諺中에는 長句도相當히만타。 假令支那諺에

執斧不伐 賊人將來 涓涓不塞 將爲江河 熒熒不救 炎炎奈何 兩葉不去 將用斧柯 爲虺弗摧 行將爲蛇。

英諺에도

to travel safely through the world, a man must have a falcons eye, an ass ears, an apes face, a merchants word, a camels back, a hogs mouth, and a harts legs. (한국生 無事히 지나려면 世上에는 매의 눈 나귀의 귀 원숭이의 얼굴에다 商人의 口辯에 駱駝의 등 도야지입에 사슴의발을 具備할 必要가잇다。)

그밧게 두가지 要素인 意義와 鹹味에 對하야도 亦是 마찬가지로 必須要件은 아니니 俚諺中에는 乾燥無味하고 含蓄과 辣味가업는것도 相當히만타

그런데 以上 三要素外에 또 한가지 必要한것은 通俗(Popularity)이다。俚諺은 맛치 貨幣와 가튼것이니 一般이 널히 使用하여 接受通用하는데 俚諺의 價値가잇다。아모리 훌륭한 寸鐵의 警句가 사람의 가슴을 찌를만한것이라도 人口에 膾炙되고 世間에 慣用되여 普遍化하지안흐면 俚諺으로서 成立하지를못하게된다。

이밧게도 或人은 機格的表現(Tigurative expression)을 드러 以上四要素外 一要素로 加하는이가 잇스나 이 또한 重要한 特徵은 아닌듯하다。俚諺에는 何等 修辭上의 피규어를 考慮하지안코 如事로한 말에도 俚諺이만타『가는날이장날』『망근쓰자파장』『아는길도 무러가거라』等이 이러하다。

다음 俚諺은 民謠와 달라 固히 四方으로 傳播되기 쉬우며 따라서 多數人士에게 頻繁히 使用되여 그사람의 敎養과 好尙에 따라 엇더케든지 變할수잇스므로 地方的多樣性이 甚히 豐富하다。그러므로 이것을 分類한다는것은 困難한 일이며 虛事이다。그러나 굿테여 세운다면 論理的으로는 歷史的區分과가티

A、上古諺
B、中古諺
C、近古諺
D、近世諺

그리고 內容을 主로하여서는

1、朝鮮固有諺
2、外來諺
3、外來諺으로서 朝鮮色으로變形한것

等으로 區分할수잇스나 前者는 理論上으로는 可能하지마는 實際에 잇서서는 不可能한 일이며 後者의 區分은 歸納的으로 다시 조금 細密히 分類하여보면 다음과갓치 논흘수잇슬줄안다

A、普通諺
例、못된 一家한열만는다 하든질알도 멍서피면아니한다

B、漢諺
例、江原道捕手、咸鏡道仗

C、郡諺
例、慶州놈이면다玉인가。

D、難諺
例、慈仁(慶北慶山郡慈仁面)장바소쿠리
揚州밥먹고 高陽구실
鐵原에가 빼앗고 漢江에가 눈흘긴다。

## 讀者社交室

▲二十八日附讀者社交室欄으로 問한 龍岩浦元秉鳳氏에게 答하나이다

一、世界文學全集 三六冊 一一、〇〇
一、同 第二期 一九冊 一〇、〇〇
一、日本文學全集 定價版 六三冊 一八、〇〇
一、同 特製 六三冊 二三、〇〇
一、新聞新語辭典 五〇
一、モダン用語辭典 八〇

販賣所東京神田神保町一ノ四二星光社書店(振替東京一〇二八二)

黃海道長淵郡 咸日貴

▲全北扶安讀者에게 問下합니다 扶安郡山內面(以下忘懷)에原籍黃海道長淵郡 … 市에든 姜基善이라는 동무의住所를 아시는분이게시면 未安하지마는 該君의現住所를 本人에게 直接通知하야주시면 그厚意에對하야謝禮를올리겟습니다 許甲伊라는女性의現住所를 아시는분이게시면 本人에게 直接通知하야주시면 厚히 謝禮를하겟습니다 彼女의原籍은 扶安이며 京城梨女高出身이외다 北滿哈爾濱新安埠安阜街六八 KYI生

▲慶南B、T、G生에게答함

朝鮮開業醫生에도限地와 無限地二種類가잇스니 어던것이던지滿洲國官公署에交涉하면絶對不應되지는안으나開業할수잇는規則은업섯고現在滿洲國에서는醫師規則도업것고 試驗制度도向今업스나不遠하야始作되리라고 奉天小西邊門外一經路에官認奉天醫學院까지設立되여잇습니다(朝鮮人經營)約三年前에는朝鮮人醫生으로 滿洲國內日本領事館에서 朝鮮人爲하야公醫로採用한일이잇스나只今은仔細히 알수업스니開業하고싶은地方의領事館에그말을照會하여보면回答합니다 仔細한것은本人에게書信으로問議하시면回示하겟소 (五月三十日附讀者社交室에서)

▲奉變아! 圖們에서 一通의 書信을던저주고 자최를감춘지가 버ー|ㄷ서五個星霜! 너무나冷情하지안호냐? 昨春牧丹江을거처 此地에到達한 惠山鎭生金台淳氏의말에依하야 비로소君의生存은 疑心할바아니엿고 當時에고貴地民會에問議하엿든바 때는느저서 君은 이미그곳을떠낫다는 回信 現이엿구려 連日新聞에「도라오지안는아들」이그리워서 北滿하늘을 처다보고한숨만지으시는아버지 그러니君의妻는親庭에아주가버렷스니 한가지煩惱은除할리이지 親友不忘生 成南咸州郡上朝陽面上開里 朴東保

▲古手風琴을買入할터이니 賣買할友가有하면 左記로通知하여주시요 全北萬頃邑內 郭日生

▲數年前에 總督府商工獎勵館에서 朝滿百貨大見本市라고 開催하여 地方商人의仕入機關이되든것은 至今은업서지고말엇습니까? 아즉잇스면開催期日을 下敎하야주시오 (海州 張允範)

▲鏡城高普에在學中이시든 金消寧兄이시여 現在어느곳에 게신지? 數次上書하엿스나 終無回答이와 매우 궁금하옵니다 京城府鍾路三丁目一五二의一 金湘旭

## 創作에잇서서의 個性과普遍性 ⑨

白鐵

『오직 孤寂한가운데서만 나에게는 잇다금 本質이 보이며根底를 울리는 一種의 連續書를把得한다!』는이것은 그普遍의境地에 個性의 極致에依하야 到達한 恍惚狀態다! 個性的인것이 普遍性에 到達하는것은 단순히 表面으로

……輕薄……하게個性을否認하고그普遍의 彼岸을 山넘어 무지개를 따라가는 兒童과가티 조차가는데서體得되는것이 아니고 그와 反對로 個性的인것을 最後까지 追求하야 그것이 極端에 到達할때 그個性發展의 絶頂에서 도리혀 反個性的인것에 나르는것 그것은日常生活의 平凡한 自己肯定이라든가 自己滿足과類似한經薄한 境地가아니고 人間心理가最後로 到達하는『心魂의深淵!』인것이다 그리고그心魂의深淵이야말로 니체의 말과가티─『詩人이 그가 볼수잇는 形態의 깁흔 衷心에 自身을包圍하고잇는온갓것을 넘어서 接近하는』境地이며 그것이 바로『우리들의 가장 內的本質이 우리들의 온갓 共通的인 根底가 기픈 喜悅과즐거운 必然性을 體驗하는』그秘境일는지모른다 何如든 그境地를 어떠한形式으로 表現하든지 우리들은 그境地에서 한普遍性을 볼수잇는것만은 事實이다!

이問題는 一層發展시켜서 作者와 讀者와의 關係를 考察할때에 더욱 明瞭한것이잇스리라고 생각된다 即 作家가

……自己……의 個性을發展시키고 極度化시키는때에잇서 作家와讀者 人類와 共同性問題는 어떠케 理解되여야 할것인가? 어데까지 個性的인것이 어떠케各別個의 讀者들과 共感을 가질것인가?

여기에 對하야『ㅂ랜드』가튼사람은『그것은 우리들은 人間이며 詩人도 人間인까닭이다!』라고 一言으로 處斷하고잇다! 말하면 그는 作家와그周圍의世界 讀者와의 感情의 一致를 文學活動의 根本의 生活氣分으로서 說明하되 그것을 自然社會에 對한 素朴한 生活體驗에 밋게한것이아니고 一層深入하야 人間이 根本的으로 가지고잇는 共有性을 問題로하고잇는듯하다 이와가튼 意味로서 또한『ㅂ르ㄹ레엘』도ー個性的인것이普遍的일수잇는것은 비겨말하면圓의中心이 圓周를 豫想케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論及하고잇는것이다 이러한말等에 대하야 우리들은一部의眞理를 許諾하지안흘수업는것이다! 말하면人間으로서 一般讀者는 詩人과

……情緖……의 本性格잇根源에 共通으로 하고 잇슴으로 다만 다른것은 그情緖의 質과 强度의 落差에 不過한것 따라서 그關係는 圓의中心과 그圓周의 程度일는지모른다! 그리고 이中心과 圓周의 關係를 希臘詩人들은 누구보다도 切實히 늣긴듯하다! 希臘人들의 野外劇場은 同心的弧線을 그리면서 觀衆席은 階梯를 따라서 차차노파진 까닭에 그것은 舞臺를 中心으로한 重疊한 遠近의 圓周에 不過햇스며 中心舞臺에서 上演되는 悲劇合唱者와 同心的弧線의 周圍座席에 안즌 觀衆은 圓周上에서 同心的合唱에 對하야 그飽和된 觀照가운데서 直接參加하여 나종은 어느듯 自己 自身이 合唱者로서 自醉하는 狀態에 니르는境遇는 一般으로 藝術은 一種의 秘妙한 暗示力에依하야 諸者의 性格까지 迫進하는것을 생각케하는것이엇다

## 新刊紹介

▲한글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花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定價七錢

▲刑法講義 朝鮮版 法學士 池田良之助著(主要內容) 緒論 第一編 總論上犯罪論、第二編 總論下刑罰論 第三編各論 等 其他發行所 京城府永樂町一ノ七九 文林堂 振替京城五四一七番 定價一圓五〇錢 送料十八錢(書留)

▲관음보문품 張義永著 發行所 京城府仁義町二四 天台宗大覺寺建立事務所 定價二十五錢

▲文敎の朝鮮 六月號發行所 朝鮮總督府學務局內 朝鮮敎育會 振替京城一〇三〇番定價三十錢

▲主日學校申報 第七十號(月刊) 發行所 京城鍾路二丁目九一 朝鮮主日學校聯合會 振替京城一四六三八番 定價四錢

▲農軍 第二號 發行所 平北宣川郡宣川邑川北洞七一 農軍社 定價十錢

▲金剛般若波羅密經講義 付 鮮譯及註解 申世淳著 發行所 京城府樓上町一二〇ノ二 婆娑庭院 定價一圓五十錢

▲朝鮮農會斡旋通報 第六十三號 (月二回)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朝鮮農會斡旋部 振替京城三〇三番 定價一部六錢

# 家庭醫學

## 胃가클뿐으로 胃擴張이라고는할수업다

### 大食家도念慮不要

胃擴張이라고하면 朝鮮人에게 가장만흔 病에하나라고 하지만 一般人에게는 相當히 錯誤되는생각이잇는것갓습니다 胃는 배꼽에서 指三우에잇는것이 普通이지만 그以下에 떠러저잇는것은 胃擴張이라고 생각되여잇지만 相當히

☆…大食

의習慣이 잇는분은 胃擴張이아니라도 相當히 크게되여잇스며 反對로 胃擴張도 胃袋의大小는 그런程度에미치지안는 境遇도잇습니다 胃擴張은 胃袋의 大小보다 그內容을 腸에보내는 機能에 障碍가 잇는가 업는가 그리고 胃壁筋의 緊張이 弛緩되여잇지 안흔가 로決定됩니다

飮食物의 種類에依하여서도 다르지만 健康한胃이면 食後三時間乃至 六時間으로 飮食物은消化되여 十二脂腸에 보내는것이로 前日먹은 幾片이 翌朝까지 胃中에잇는분 食後數時間을 지나도 胃가食後와 거의갓게커잇는분은 胃擴張이라고 볼수밧게업습니다。 胃擴張의 自覺症狀으로서는 胃部에 무거운 充滿感이잇고

☆…가슴

이아라 코발다ー누어서、드림이만 胸腹部를 움죽이면、물이드러잇는것가튼 소리가납니다。

때때로 吐할것갓고 三四日마다 大量의 胃內容物을 吐하게되다면 重態라고 볼수밧게 업습니다。

이것을 放任하면 漸漸衰弱하야 體重이줄고 結核等을 併發하게되므로 速히 適當한 治療法을 講究치안허서는 아니되지만 以前은 胃擴張의 療法으로서는 嚴重한食養生이 第一이고

여러가지 榮養飮食物이 잇지만 最近學說로서는 오히려 偏食을 避하고 될수잇는대로 多種類의 飮食物을 適當히取하는것이 第一이라고 합니다。即 맛가리손 博士도 말한것가티 胃擴張과가튼 優性胃腸病의 大概는 偏食으로부터오는 榮養障碍라고하는 것이今日의 通說이므로 이것을 治療함에는 모든 飮食物을 偏頗업시 取하는同時에 衰弱하여진胃壁筋에 活力을賦與하야 緊張하게하는것이 必要합니다、

그래서 이目的에가장 適合한 것이 活性헤ー뭬菌劑의 內服에依한 酵素療法이지만 活性헤ー뭬菌劑라고하드래도 相當 種類는만치만 가장 代表的으로 効果의 點으로 定評잇는『錠劑わかもと』의 作用을

☆…要約

하면 活性酵素 十數種의 비타민 호르몬等의 綜合作用에依하야 衰弱한胃腸筋의 細胞에活力을 賦與하야 그機能을更生식히는 細胞賦活作用과 아미노酸 구리고겐、脂肪酸、無機鹽類等의 諸榮養素의 偏頗업는配合에依하야 偏食의弊를업시하고 榮養을向上식히는 두作用이잇서서 胃擴張을 偏食에서오는 榮養障碍라고하는 最近의學說에 가장適合한 治療法입니다。

### 年齡과飮食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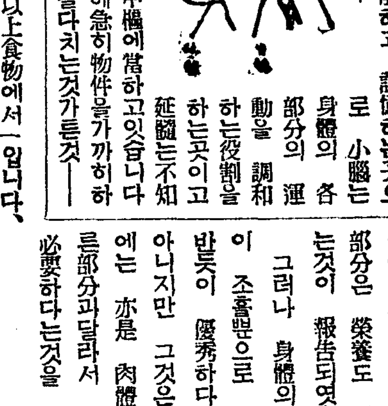
青壯年期에는 旺盛한 新陳代謝에다하기爲한 動物性의 蛋白質과 脂肪을 만히取할 必要가잇스므로 肉食이 조치마는同時에 無機物비타민도 充分히攝取할 必要가잇습니다。

그러나老年期가되면 心臟等의 疾患을 保護하기爲하야 肉食을 制限하고 脂肪과 蛋白質도 可及的 植物性의것으로서 代用할수잇게 注意합니다、活性헤ー뭬菌劑『錠劑わかもと』는 青壯年期에는 비타민과 無機物의 補給料로서 價値가만코 老年期에는 植物性의 榮養素 호르몬等의 供給源으로서 常用을 推獎하고십흔藥입니다

## 頭腦를조케하는食物과 害롭게하는食物

腦는大腦、小腦、延髓等으로 되여잇서 大腦는事物을 理解하고 記憶하는곳이로 小腦는 身體의 各部分의 運動을 調和하는役割을 하는곳이고 延髓는不知中에行하는運動의中樞에 當하고잇습니다

─例를들면눈압헤急히物件을가까이하면不知中에 眼瞼을다치는것가튼것─



頭腦도肉體의一部인以上食物에서取한榮養에依하야 그機能이維持되여잇는것은말할必要도업스므로食物의適否에依하야 頭腦의作用이달라지는것도當然한일입니다、그러면어떠한食物이 頭腦를조케하고도害롭게하는가하면 結局身體의榮養으로서

가장價値잇는것이 頭腦에도가장조혼것이됩니다、歐米學生의調査와 我國榮養研究所等의調査를보아도 身體의榮養甲의學童은 成績도大槪上位에잇서서 低腦兒의大部分은 榮養도 丙이라는것이 報告되여잇습니다 그러나 身體의 榮養이 조흔뿐으로 頭腦도 반듯이 優秀하다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頭腦에는 亦是 肉體의 다른部分과달라서 注意가 必要하다는것을 말할뿐입니다、

배가부르면 눈精氣가업다고하지만 그것은배가부르면 血液의大部分이 胃腸에動員되여 腦에는貧血하야 잠이오는것을말한것으로

☆…너무大食

하는것은頭腦의 作用을鈍하게하는原因이됩니다 米國의榮養學者베네치트博士는 頭腦를쓰는사람은肉體를쓰는사람에比하야 一層少量의食物로足하고 下人이三分間廊下를掃除하는 에네루기ー로一時間讀書할수잇다고하지만 精神勞働者라고할지라도 讀書만하는것이아니므로 그러한적은食量으로足할것은아닙니다、

어떠튼頭腦를쓰는사람은 너무消化하기어려운食物은 不適當하므로少量으로充分히 榮養이되고도便通이잘되며 新陳代謝를活潑하게하는食物이適當합니다。偏食에떠러지는것은 어떤意味로서든지避하지아니하면 아니되지만 特히 蛋白質과 脂肪(肉類)의過食과 無機物과 비타민(蔬菜果物魚骨)의 不足은 注意가 必要합니다、

最近頭腦를 쓰는분사이에서 好評을博得하고잇는것으로 活性헤ー뭬菌劑『錠劑わかもと』가 잇습니다 이것을 服用하면 多種多樣의 活性酵素와 비타민、호르몬等의 作用에依하야 消化營養의 細胞의活動이 敏活하게되여 吸收排泄이好調로 便通이整齊되며 新陳代謝가 迅速히되는故로 煩雜한일에도 疲勞하지안코 能率도올라갑니다

特히『錠劑わかもと』가 含有하고잇는구리고겐 아미노酸、脂肪酸等은 腦神經에 貴重한榮養이 되여 豊富한비타민B、D는 榮養素를도와서 疲勞物質을 分解排泄하야 새로운活力을 頭腦에供給하므로學生 事務家 研究家 著述家等의 座右에備置하야常用할만한藥입니다

이『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際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三百錠入、千錠入의 二種이一日分 겨우五、六錢(小兒에는 二、三錢)의 廉價로 發賣되지만近來 그聲價를 利用하야 効果가 疑心되는類似品(劑形빠ー르母劑라는 類似藥이다)을 推薦하는藥店도 잇스므로注意하십시요

## 무엇을節約하여서도 備置하여야할常備藥

(福岡) 伊藤十郎

(前略) 우리夫婦사이에는다섯애가잇는데 열살난애가 마지입니다 나는 胃腸이나쁘므로 그때는 胃散과 다른여러가지藥을 恒常服用하고 잇섯습니다。그러나 前日에 어떤雜誌인가 所聞엔가 ××××와『錠劑わかもと』의 惡評을 드럿습니다、(中略) 半信半疑로 藥店에서 사다가 服用하여보니까 胃散보다 氣分이 조흐므로 繼續하야 服用하엿습니다 어쩐지 배가便하므로 至今은『錠劑わかもと』만 服用하고잇습니다 내가 배가 便하므로 애들의 消化不良과 腹痛인時에 먹이면 效果가잇스므로 이것은 어린애들에게 참으로 조타고 생각합니다。 애들도『錠劑わかもと』라고 하면 第一어린애를除한 다른네애는실혀하지안코 먹습니다。 비싸닌 어린애는 물도마시지안코 얼마던지먹습니다。그래도 過食할가십허서 두세알만줍니다。(中略)至今은 집안이 『錠劑わかもと』 實입니다 그러나 經濟上 形便이잇지만 무엇을節略하여서든지 家庭常備藥으로서 恒常備置합니다、藥이 적어지면 마음이不安하여집니다。(下略)

小學敎育助成을爲한 優秀한敎授用 掛圖一百萬枚를 小學校에寄贈

『わかもと』一瓶마다『掛圖寄贈引換券』이부터잇스므로求하시는분은協力의意味로一枚라도업시하지말고小學校에寄附하여주십시요 그引換券을送付한小學校에對하야掛圖를寄贈합니다。詳細는東京芝公園十一號地敎育資料會에照會하십시요

掛圖寄贈引換券を 御活用下さい

連載野談

# 布囊記 (卅五)

申鼎言 作
金熊超 畵

## 그미인의눈물(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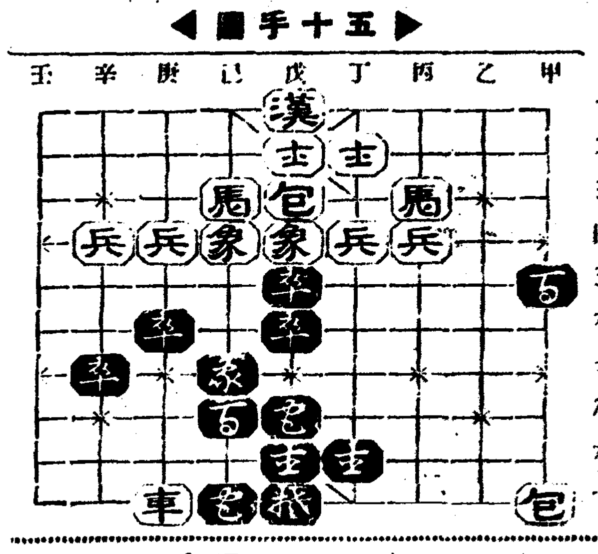
예초 그 미인은 그 관원을 황 입검으로 알엇다。
그런데 그의 입으로 호통이 되라는 말을 들을때에 그미인의 눈앞헤는 별안간
『천날 직히든 절개를 절개대로 직히라?』
『방금 오려는 호팡을 호팡대로 바드라?』
이 두갈내 큰길이 훤하게 보이며 좌우간에 가슴이 덜컥내려 안젓다。
그러나 절개를 직히려는 마음이 아무리 굿셀지라도 그것을 방금 깨트리려는 힘이 더욱 굿세이니 어이하리。
그미인은 할일업시 단장을한후 돌아오겟다는 허락을 바더가지고 딴방으로 갓다。
그리고 단장을 하는중에 다시금 절개、호팡、두길이 모두 걸기가 어렵게 되것을 여러가지로 궁리하다가 필경은 큰결심 아래에 한꾀를 깨닷고 곳 몸을일어 나갓다。
그런데 이때 그 관원은 그 미인이 빨니 도라오지 아니하는것을 한란하고 잇든중 비록 더듸기는하얏슬지라도 과연 어엽뿐 음성으로 다만 먼저 등불을 꺼주기를 청한뒤에 지극히 아담한 향긔를 피우면서 그 기룹든 미인이 방안에 들어서니 이제는 다시 기달릴것이업고 의심될것이 업섯다。
이에 그 관원은 한끗기룹든 자리에서 피곤한 꿈을 꾸다가 얼마뒤에 엽히 허전한 바람에 깜짝 놀나 눈을 떠보앗다。
그미인은 자리에 업서지고 벌서창에 빗친 밝은 해빗이 그 미인이 누엇든 자리에 대신 빗최고잇다。
그 관원은 벌떡 이러나 매우 불쾌한 마음으로써 문을여러제ㅅ치고 박갓을 내다 보앗다。
때마츰 그관원의 눈에는 그 미인이 벌서 옷을 가라입고 쓰레질하기에 분주한양이 보이엇다。
『아!。사랑은 긴데 밤은 어이 그리 짧으고!。』
하고 그 관원은 그미인의 꿉게비슨 머리털이 약간 헛트러지고 곱게바른 분이 약간 얼룩진양이 오히려 어엽뿌게생각키엇다。
그러나 그관원은 임검의 명을바든 일이라 오래 머므를수 업스므로 할일업시 미흡한 정은 뒷날로 미루고 도라갓다。
그관원이 돌아간뒤에 동내녀자들중에는
『잘되엇지 잘되엇서。그 가난뱅이 서방에게 비할일이야? 장차 그호팡이 어떠컷키에。그는 가난뱅이 안해。더구나 그러케 어엽뿐 녀편네로서 절개라는 말이 애당초 틀린수작。 참으로 어엽뿐것이 큰복이로군。』
하며 은근히 그미인을 부러워하는 녀자도 잇고。
『에이、남의 일이라도 원통하기 짝이업서。그 안팟이 깨끗하든 녀편네로서 에이 원통해。』
하며 그미인이 거역할수 업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필경 몸을 더럽힌것을 크게 애석히 생각하는 녀자도 만하얏다。
그런데 그관원이 돌아간뒤 그 미인의집에 부처잇든 녀자가
『팔자지、팔자야。입검서방 실타는것도 팔장 나가든 신세로 하루밤 사이에 입검의안해되기도 팔자야、팔자。』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미인의고집을 비방하는듯、또 한편으로는 자긔가 줄지에 영광스럽게 된것을 자랑하는듯 추착업시짓거리고 다니는말이 마츰내 한소문이되여 떠돌앗다。
『그러면 그럿치。그 녀편네가 그럴리가 잇나。』
하며 동리사람들은 그미인의대담한짓을 놀나기도하고 그마음을 무한히 칭찬도하얏다。
그런데 이소문은 그 동리에만 끗친것이 아니라 대궐까지 들어가게되엇다。
이때 개루왕께서는 그 소문을 들으시고 크게 놀나사 곳 그 관원을·명하야 어찌된 사정을 알어보라하섯다。
『허허。이런 맹낭하고 대답한 일이 어데잇스리!』
그관원은 과연 그미인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랴고 여러가지로 궁리하다가 필경 자긔집에 언처잇는 딴녀자를 단장하야 자긔 방에 대신 드려보낸것 드려보낼때에 얼골다른것이 탈로될가 두려워서 먼저 불을 끄게한것。또는 밝기전에 그녀자를 나오게한것。그리고 그미인은 그관원의 품에서 가장 밤을 지내고 나온듯을 보이기 위하야 능청스럽게 단장을 약간 헛트러지게하고 일쪽 나서서 집인 쓰레질을 감히하는것이 모두속임수단이엿든것을 분명히 들어냇다。
이에 그관원은 변신구을한것을 분히 생각하는것은 물론 개루왕께서도 크게 진노하사 필경 그미인내외를 잡으라시는 분부를 내리시게 된것이니 이제 그미인은 죽엄이아니면 분명히 몸을 참으로 더럽히는것 박게 남은것이 업게되엿다。

本社主催

## 將棋名手對局譜 (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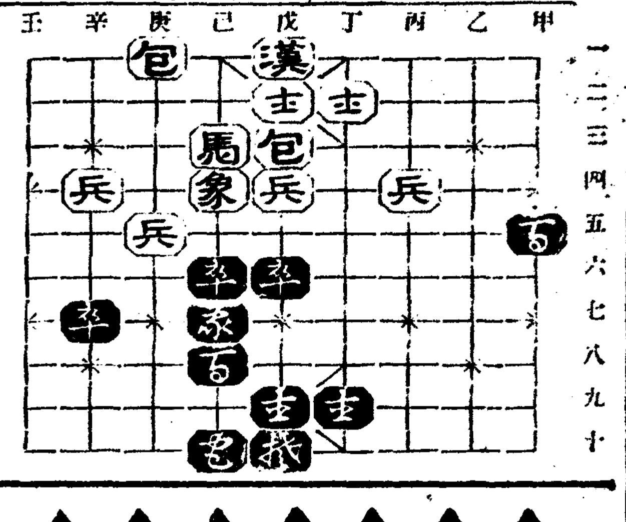
漢 李在鳳 / 楚 先手 全于石

◀五十手圖▶



◀六十手圖▶

己六●—庚七打車
甲七包—甲一
庚十象—己八
甲一包—庚一
庚六●—己六
庚四兵—庚五
戊五●—戊四打象
丙三馬—戊四打卒
戊六●—戊四打馬
丁四兵—戊四打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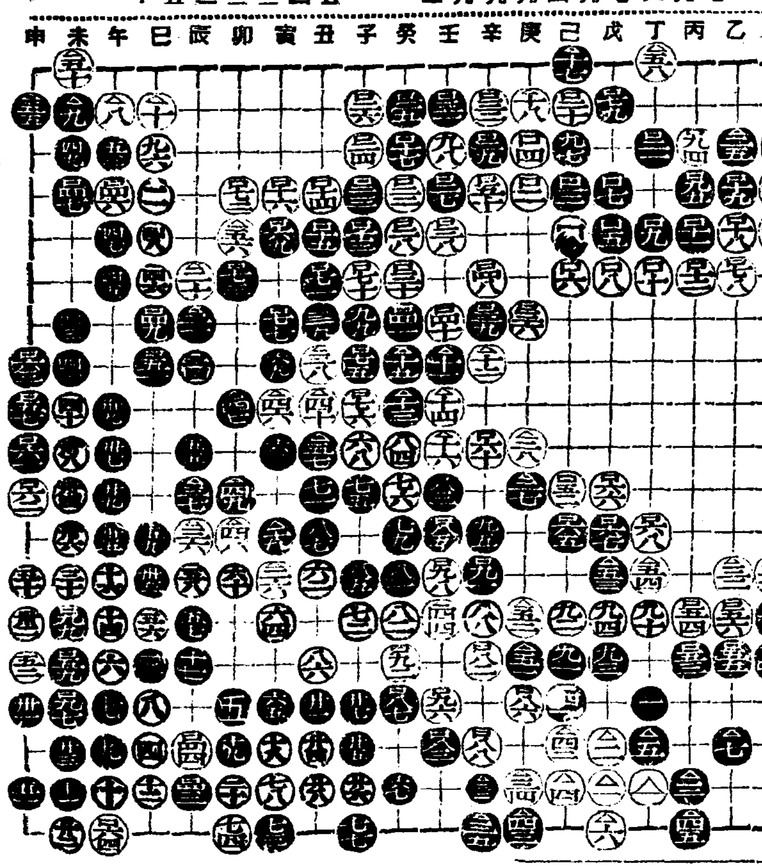


本社主催

## 圍碁對局譜 =15=

白 丁奎春
黑先 任佑植

●二三九 丑의七
○二四〇 丑의九
●二四一 己의十六
○二四二 己의十七
●二四三 庚의十九
○二四四 壬의十四
●二四五 丙의十九
○二四六 寅의九
●二四七 卯의九
○二四八 卯의十二
●二四九 卯의十一
○二五〇 未의一
●二五一 庚의十五
○二五二 庚의十四
●二五三 戊의十三
○二五四 丁의十三
●二五五 申의二
○二五六 卯의五
●二五七 丑의十
○二五八 丁의一



蔡極文氏評日 黑白雙方에 起初結末이 互相對峙하야 優劣成否난 不可指一而明辨이요 及其計戶立場에 黑이 差有不及은 辛十六刼과 辛十六刼에 黑이 ■不見利한 原因인가하노라

決勝戰 白 丁奎春 四十一戶 黑 任佑植 三十五戶 白六目勝

## 試寫室

### 바바리코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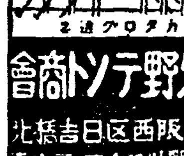
펙、햇트와 촬스、막아서 兩氏의 共同脚色인 이映畵는 兩氏의 이름으로만도 相當히 무거운 企待를 부치게 한다。거긔다가 監督의 하와드、혹스도 凡庸한 솜씨는 아니요 主演의 호프킨스라든지 로빈슨이라든지 또한 有能한 俳優들 인만큼 이映畵에 對한 우리의 企待를 더 一層 크게 함에 틀림이 업다。
그 梗槪로 말하면 산、푸란시스코가 바바리、코스트라고 불러지든때 即 十九世紀中葉에 賭博과 피스톨로 어지러워잇는 그 곳에는 金鑛發見으로 因하야 사람의 떼가몰려 들고 잇다。가든배로 한사람의 女子와 또 한사람의 紳士가 到着되얏스니 그 女子는 金鑛發見者인 어느靑年과 結婚하려오는 메리요 그 紳士는 코ㅅ브大佐다。메리가 코ㅅ브 大佐의 도움으로 上陸稅를 내고 급기야 배를 나리고 보니 그靑年은 이미 賭博으로 돈을 일코 自殺한 뒤로 한참동안 失望하얏섯스나 어떠한 決心아래 돌아갈 路費를 주마고 하는 코ㅅ브大佐의 好意를 물리치고 머물어 잇기로 하얏다。멧칠뒤 샤메리스라는 熙漢이 經營하는 賭博場에는 스완이라는 美人이 나타나 그야말로 千客萬來이엇다。그 스완이 메리라는 것은 勿論이다。코ㅅ브大佐는 산·프란시스코에서 新聞을 發行하게 되얏는데 샤메리스와 衝突되야거의 印刷機까지 破壞當케 된것을 메리의 挽留로 겨우 無事하얏다。메리는 샤메리스에게 雇傭되야 잇스면서 샤메리스의 行事를 맛당치 안케생각하는中 偶然한 機會 짐이라는 靑年을 맛나서 은근히 情을 부치게 되얏다。그뒤 짐은 메리가 墮落한 女子인것을 보자 自抛自棄하야 自己가모은 砂金을 全部 賭博에 업새고 酒店의 웨터로 路費를 벌게되고 코브大佐는 究竟샤메리스의 部下에게 殺害를 當케된다。코브大佐의 죽엄을 動機로 自警團이 組織되야 샤메리스一派를 撲滅코자 하는데 샤메리스는 메리와 짐의 關係를 눈치채고 짐을 追擊한다。샤메리스가 짐을 붓들엇스나 結局 사랑의 失敗者는 것을 깨닷앗다。메리를 짐에게로 쪼츠며 自己는 泰然히 自警團에게 捕虜가 되야갓다。惡漢役의 로빈슨은 本來 名役이지만은 호프킨스의 演技도 훌륭하다。사랑하는두男女 쪼각배우에 몸을실고惡漢의 追擊을 當하면서 안개끼인 바다우로 달리는 씬안개가 스르르 거치고 달빗이 비치면서 호릿하게 보이든그 쪼각배가 鮮明하게 나타나는 씬은 비록 아트나마 一般觀衆의 마음을 붓들기에 못하야 興行價値를 爲主하는 혹스의 本面目이 들어낫다。
近來에 對하든 米國映畵와比較하야 이 映畵는 推賞히上에 屬하나 햇트·막아서의名聲에 비치어는 도리어 섭섭한늣김을 주는바이업지안타。왜그러냐 하면 이映畵에서는 그들 本來의 特才를 發揮치 못하얏다고생각되는까닭이다。
(不日間市內朝鮮劇場에서上映)

寫眞은 同映畵의 一場面

## 푸렛드、바소로뮤 名優로推薦되다

少年俳優푸레스드、바소로뮤도차이니스、시아라表庭에사인을 永久히남기게되얏다。그곳에는歷代로 有名한名優의싸인 손발의겨냥을 保管하야두는곳이다


來る六日特別大公開
帝都「讀賣新聞」三百萬讀者熱狂の小小說「妲妃殺シ」遂に來る!!
持日晝夜三回興行
階上·階下席開放大人·學生卅錢均一 小人廿錢均一
新興キネマ京都超弧緘作
原作 邦枝完二 讀賣新聞連載
監督 石田民三 オールサウンド
妲妃殺シ
鈴木澄子 主演
毛利峰子·白石明子·尾上榮五郎·荒木忍·田村邦男·松本田三郎大競演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弩級作
原作·脚色 松崎博臣 監督 鈴木重吉 オール·サウンド
洋上の感激
河津淸三郞·衛影公子 主演
江川宇禮雄·淸水將夫·由利健次·江川なほみ·大井正夫 助演
新興キネマ提供 新興キネマニユース第 六輯全卷
樂町 電二五番
中央館

矢野


矢野テント商會
大阪西区江戶堀北通三丁目 振替大阪四六三五 東京橋本海局前

六月五日부터晝夜
喜劇座離京(終週)公演
다시地方으로巡業의길을떠날喜劇座가밧치는告別特別公演이니보시라括目할超特別藝題!
南宮春編
一、流線型『春香傳』三幕五場
超모던春香傳으로脚色의妙와웃음너이야말로珍無類의春香傳일것이꿈도꾸어보지못한一九三六年型春香傳으로큰센세이숀을일르킬고이말것이다
主演 金小島、李正順、南方雪、許英編、金元浩、崔英泰、金鐵、孫一平、尹炳春、金小貞、金鐘脚色
二、新版 薔花紅蓮傳 三幕五場
薔花紅蓮의決定的으로써새로운판버아래上演될이演劇이야말로愛劇家의눈물과한숨을자아낼것이다
主演 尹才童、石臥佛、金景希、龍玉子、宋鬥平、尹順善、金牧童、太乙民
西大門町 電光③三番
東洋劇場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머리가몸시압흘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변히변두리를압흘때…………노ー신

頭痛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할때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을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드래도
머리가아수明快해집니다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이藥은全國賣藥商店에잇습니다
各處漢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이商標에注意하서요

노ー신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三丁目 龍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五五〇番

品質本位

花王石鹸 화왕비누

이것以上의石鹸은업다!

純粹의石鹸
花王石鹸은 世界最高의純粹度인 九九·四%를가진 純良石鹸인만큼 어떠한 弱한 皮膚일지라도 터지게하는법이업고 穩和하게作用하야깨끗이 때를써서내는同時에 살결을아름답고부드럽게합니다。

經濟인石鹸
아무리크다할지라도 족같이 풀어지고 부서지는 石鹸은皮膚에 대단히害로옵고 不經濟입니다。
花王石鹸은 獨特한製法에依하야 만든것이니까 適當히 풀려서 부서지는법이업고 最後에얄버진 조각까지라도 完全히使用할수잇슴으로 어떠한石鹸보다도 經濟的입니다。

恒常皮膚衛生과 家庭經濟에留意하시는 近代婦人여러분께서는 모다花王石鹸을 使用하십니다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東京·花王石鹸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 製絲業에서 손을뗄 群小業者俄然失色
## 新聞報道로 許可制를알고 連日慶北道에殺到

【大邱】조선제사업령이시행되어 오만삼천호로 경북도내에잇서서 사백칠십명의 제사업자 중에서 제사업령의 규정에 합격자로인정할만한 구십일호만 접수하야 총독부에 제출되여 금명간에허가서가 나오리라함은 본보에특보한바이다 이특보에 의하야급 귀야 알게된 제사업자는 방금 전전긍긍 상태에 빠저잇서 대소동중이라한다 대구부내외 제사업자는 도당국자에게 그진의를 타진하는등 매일수십명식 도농무과에 살도하야 게원으로하야금 큰두통을 압케하고잇다고한다 이제사업령에 의하야 허가되요점은 다음과 갓다는데 종래제사업자로써 종목의 허가업시 제사하는 범손자에게 청원이하의 벌금이잇다하며 매매의 목적이아니고 자가용인 제사에 대하야는 허가업서도 관계업다고한다 일부규정을 긔록하면다음과갓다

▲左의各號에 該當한者는此를 除外함
一、五釜未滿의設置로써 生絲의 製造業者
二、揚返又는 東裝以後의 工程만으로行하는業者
三、第三者에게委託하야 生絲의 製造業者
四、產業組合에有한 製絲場을利用하며 又는產業組合에 委託으로生絲의製業者
五、五釜未滿의 設備의製絲場이 有한產業組合
七、揚返又는 東裝以後의工程만으로行한 產業組合

이상의 규정에의하야 합격자만 도당국에서 전형하야 조선총독부에 내신하엿다는데 내신된구십일호는 다음과갓다하며 종래 제사업자로써 아즉수속에참가못되엇자에게는 이규정에합격못된것으로 인정되다고한다

片倉 朝鮮 大邱 佐佐木 小野田 中島 小木會 丸山 金南守 大東 東洋 新興 商信 慶北 金善業 山田 大井 全陵 安藤 咸昌 醴泉產組 張二得 洪璣欽 李用洙 崔金相 池珠源 郭永福 李起柱 全日權 李南松 合川 崔仁澤 崔成澤 張永濬 金敎式 張志誠 金鶴周 崔東必 朴方九 李元世 朴章根 金仁碩 朴梁業 李長建 濟昌 尹龍淡 李錫嶽 崔東述 三興 李鍾元 洪穆 李正石 李千同 金永洙 任仁光 船引 申東煥 金千鍾 金尙鎬 金正輝 金文圭 馬熙積 權炳斗 金過權 劉榮潞 宋茂元 柳魯美 金旭運 柳時煥 鵜井 金炯泰 蔡重植 朴正東 醴泉農會 李垈柱 金思定 金圭年 柳時台 白井 尹周鶴 宋熙柱 粱成 崔俊 堀家 姜永周 朴鳳瑄 李俊業 鄭英鉉 遠藤 宋仁賢 愼重燾 石應穆 成永柱 (以上九十一名)

# 群山港築港擴張 錦江橋架設促進
## 總督其他要路當局에電請
### 群山港灣調査會總會서

【群山】군산항축항확장급 군산항금강철교가설 (群山港築港擴張及群山港錦江鐵橋架設)을 목적으로한 군산부항만조사회(群山府港灣調査會)에서는 지난팔일오후세시사십분부터 군산 공회당(群山公會堂)대홀에서 제사회종회(第四回總會)를 백여회원출석리에개최를하얏다。(佐藤)부윤의 개회사가잇슨후 적송(赤松)부산(福山)서홍선(徐鴻善)등 제씨의 열렬한격려연설이잇슨다음 제일호의안(議案)인 군산항축항확장급군산항 금강철교가설에관한건과 제이호의안인 군산항축항확장급금강철교가설에관한 립시기성회설치의건을 만장일치로가결한다음 즉시 조선총독 척무대신 대장대신 긔타요로당국에소회집이념도에는가어히실현을하야달라는청원전보를진후 동오후오시에 폐회를하얏다한다

期成會委員 ▲委員長樋口 ▲副委員長上田(勝) 赤松文鍾鶴 ▲委員牛尾 檜垣 伊藤 徐鴻善 千頭 李晩秀 小副川

請願書

當府多年間의懸案에屬하는 群山港擴張及群山港錦江鐵橋架設의件에關하야선 昭和七年以來十數回에亘하야 請願을한바잇스나 尙今實現을 보지못함은 實로遺憾으로思料하는바이다 近時各種產業의發達 運輸交通機關의整備 諸工業의勃興等 相俟하야 貿易은累進的 伸展을 밟버 昭和十年度에는 輸移出入貨物 八十二萬噸으로서 其貿易額八千七百四十萬圓 沿岸貿易額二千餘萬圓을 合算할진댄 實로 一億一千萬圓에 達함으로 年年 噸數에잇서 十萬噸 貿易額에잇서 二千萬圓이 激增할 形勢로서 本築港의 緊張은 產業及經濟上焦眉의 急務일뿐아니라 가장 緊切必要한 事業이죽 閣下의 御裁斷에 依하야 昭和十二年度부터 實施하야 주심을바라며 또한 群山錦江鐵橋 架設事業도 本時局에 鑑하야 運輸交通上急施를 要한즉 築港擴張과 同時에 實現을 보도하도록 하야주심을 玆에請願하나이다운운

# 龍川某水組理事等 傳票를僞造橫領
## 畢竟免職으로處分

【新義州】평북룡천군(龍川郡)모수리조합(某水利組合)리사 목교약삼랑(木橋若三郎)(假名)과 동조합기사 아무(我茂)(假名)등두명은 전표를위조하야 수천원을횡령하여 먹은사실이 발각되야 지난오일 사직하는형식으로 면직을시키엿다고한다

◇……南朝鮮蹴球大會 (上)少年팀優勝 光州鐵星軍(中)青年팀優勝 井邑蹴球團(次中)優勝旗授與式(下)中學팀優勝 高敞高普軍

# 海西唯一의私立 初等敎育研究會
## 七月中安岳邑에서

【安岳】해서사립초등교육계에잇서서 유일의 해서교육연구회는 년이차의 변중행사로 근십여년간을 계속실행해오든바 금년춘긔연구발표회는 좀 느즈감이잇스나 오는칠월초순에 할모양인데 이미 가입된학교는 사리원 덕성(沙里院德盛) 재녕명신(載寧明新)신천경신(信川敬新) 안악안신(安岳安信)네개 사립보통학교이고 금년에 이르러서 새로히 가입할 학교가 안악군안곡면명진(安岳郡安谷面明進)안악군룡문면봉삼(龍門面奉三)량학교가 추가할것임으로 압호로는 쾌개 사립학교가 련합한 해서교육연구긔관이 될것이라고한다 금번모힘장소는 안악읍안신보교이고모혀서할일은 연구발표(研究發表) 연구교수(研究敎授) 친목회(親睦會) 등인바 그날밤에는 안신보교학생들의 환영가극회까지잇서서 당일의 성황을 예긔하고 해서교육사상의 특별한이채를내리라고한다

# 法院支廳運動

【錦山】전북금산에서는 대정십삼년도에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청(全州地方法院錦山支廳)이 폐청되자 지방유지가 분긔하야 지청부활운동을 맹렬히 하엿섯스나 별효과업시되야 그간운동은 침체하엿든바 나날히 지방발전으로 읍의승격이 불원한장래에 잇슬만큼 이전에 비하야 인구의수효는 몃배로늘어가는이때에 지청이업서 일반의불편은 말할것업다 금산을위시하야 무주진안(茂朱、鎭安)유지들이 지청의필요를 가일층 심각하게 늣기게되야 금년에 다시 금산지청부활운동을 개시하게되엿든바 지난칠일에 주정(酒井)검사정이 금산시찰을 오게되자 이긔회하야 금산、무주、진안(錦山、茂朱、鎭安)유지들이 련명으로진정서를 작성하야 제출하얏다는대 긔어히 목적달성에 매진하리라한다

# 食刀가진强盜 洞民總動逮捕

【大邱】지난칠일밤 새로한시경에 영양군립암면산해동(英陽郡立岩面山海洞) 황치순(黃致順)방에 일곱치가량되는 식도(食刀)가진 강도가 침입하야 그집사랑에서 자고잇는 김우지(金宇支)(四七)를 깨려노코 돈내라고협박하엿든데 김씨는 도적이야소리치자 강도는 동김씨에게 약간의 상처를입히고 문밧그로뛰여나가다 김씨는 따라 밧그로 나가면서 소리를지르자 그집에 자고잇든 집안사람이 밧그로뛰여나와 도적을 잡고저하엿스나 도적은 담을뛰여 넘어가다가 떠러저서 머리、팔、다리에 상처를내고 도주할수업스므로 현장에서 곳체포되엿는데 그자는 본적현주소가 일정치안흔 전영득(全永得)(二二)이라한다

# 米統組合設置
## 忠北各郡에

【淸州】금번에 의회를 통과한 미곡자치관리법(米穀自治管理法)에의하야 충청북도에서는 각군에 군농회와 이명동체(異名同體)의 미곡통제조합을 조직설하고 도에는 지방미곡통제조합련합회를 설치하고 지도통제하기로 되엿다한다

# 滿洲國視察團 參加申請遝至
## 申請期日은十五日까지
(水原支局主催)

【水原】수원역주최 본보수원지국후원으로 만주국시찰단을 모집하게되엿슴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동안각방면으로 신입이살도하야 불일내로 예정원수가 초과하겟기로 이를끈키로하며 따라서 신입기일(六月十五日)까지 원수초과가되면 해시찰지와다시련락취코자하는바인데 이긔회를일치마시고 다가티참찰하야주기를바라다고한다 그리고 신입금으로 금이십원을 수원역장에게로 송금하야야된다고한다

# 雄基體育會主催 市民大運動會
## 端午節을期하야

【雄基】단오명절은 일년중에유일한 가절이라고 인식해오는바 웅긔체육회에서는 단오명절을긔하야 음오일(五月五日) 륙량이틀동안 송평운동장에서 시민대운동회를개최키로된바 첫날에는 륙상경기(陸上競技)의일에는 각희(脚戲)를 시킬터이라하며 해마다상당한 성황이엿든 만큼 금번에도 시민은 물론 각지 일반도래로 참가를 바라마지안흐며 그리고 금번대회의 부서와 임원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會長 朴俊綱 ▲副會長 李裕商 ▲施賞部 林英權 馬永漢 崔德煌 ▲財務部 朴容藤 ▲審判部 金鳳根 元碩常 李熙澤 ▲競技部 方鳳龍 鄭候敏 姜壽岳 金潤集外五人 ▲接待部 柳宗學 安東燮 趙龍洪 ▲記錄部 金昌俊 太公林 金熙鏞 辛哲洛 ▲警護部 趙敏倫 韓武爭外十三人 ▲救護部 金泰培 金鳳夏 徐相振 金弘燁

# 本報讀者慰安 映畫觀賞大會
## 本社撫順支局서

【撫順】지난사일부터 사일간무순대중좌(大衆座)에서 최승희주연(崔承喜主演)으로된 신흥키네마영화반도의무희(半島의舞姬)를 상영하게되엿는데 본사무순지국에서는 이영화로 하로밤이나마 따듯한 동포에게 위안을주고저 전긔대중좌에 교섭하여 특히지국에서 독자는물론 일반시민에게는 누구를물론하고 우대할인권(優待割引券)을 진정하여 독자는반액 시민은십전할인으로 입장케한바 련일대만원의 대성황이엿섯다고한다

# 白晝虎君出現 畜牛二頭咬殺

【大邱】지난이일오후 다섯시경에 청도군풍각면수월동(淸道郡豊角面水月洞)뒷산에서 대나제 표범(豹)이 돌연히 낫타나서 그동리에사는 리덕이(李德伊) 리재련(李載璉)의 소유인 송아지 두마리의 목을무러주기엿는데 이것을 동리사람들이 발견하고 소리를치자 표범은 곳 뒷산으로 다라낫는데 일로말미아마 동민들은 공포중에 잇다한다

# 빗조흔救窮工事 勞賃은二三十錢
## 十年度就役延人員六十九萬名
## 그들生計엔滄海一粟

【大田】충남도에서 제이차궁민구제사업을 소화십년도부터 십개년계획으로 도내황폐한 림야와금강(錦江)류역을 중심으로사방공사(砂防工事)사업을 계획하야 소화십년도 이십삼만륙천오백칠십구원을드리여 연인원륙십칠만오천구백륙십구인을구제하얏다고하며 십일년도에는이십사만일천륙백삼십사원으로륙십구만사백팔십륙인을 구제하라는 계획으로방금공사중이라고한다 참담한 농민의생활은 나날이피폐하야 자작농은 소작농으로전락되고 소작농은 여지업시 몰락되야그생도를 차즈랴고 방황하고잇는이때이니만치 적지안흔도움이 될것이다 그러나 아츰부터 저녁까지 분동하면 임금은불과 평균삼십오전이라고하니 물론 다소더밧는사람도잇지만소년로동자는 십오전내지 이십전이라는 임금을바다가지고 보리죽과 좁쌀밥으로 그날그날의련명을 하야나간다고한다

# 船長行方不明
## 怪!深夜進航中
## 主人일흔"배"만등실등실
## 警察署嚴重調査開始

【馬山】기픈밤 진항중(進航中)인 회물발동선 가운데에서 승조원이 잠들을자고잇는틈에 선장은 간곳이업고 배는운전하는사람이업서 맹목진항을 하다가결국섬바위(島岩)에 부대친 탐정소설가튼 괴사건이 발생하얏다 이제내용을 조사하건데 화제의주인공은 마산부원정암전회조점(馬山府元町岩田回漕店)발동선복환(福丸)이십돈의 선장 마산부통정이정목 십일번지 백정중태랑(白井重太郎)씨는 전긔 발동선에 회물을싣고 지난오일 오전세시경에 부산구잔교(釜山舊棧橋)로부터출발 마산을향하야 진항하는중 다른승조원들은 모다선부실에서 잠이들엇섯는데 오전오시반경에 겨동되는 큰소리에 선부들은 놀라깨여본즉 선장은 간곳이업고 배는 가덕섬바위(加德島岩)에 부다처잇슴으로간신히 선부들이 운항하야 여섯시반경에 전긔사실을 진해서에 계출하고 마산에도라왓다한다 이제문제의 주인공 백정선장은그 가정상황을보아도 자살할우려가 업는사람이며 운전도익숙한사람이라는데 충돌당시에 물에떠러저서 죽엇슴인지?또는살해를당하엿는지?목하진해서에서는 관계자들을 소환하야 선장의행방에 신중조사를 진행중이라는데 일반은 사건의 추리를 주목하고잇다한다

# 在奉初等學校巡禮記 【七】
## 保合堡普校篇
## 呱呱誕生은今春正月 夙成하게 도잘도자라
### 洞里靑年素人劇興行의結晶

富와安逸과 享樂을 누리며 네온사인의 交響樂에 춤추고 노래하면서 靑春이덧업슴을 恨하는都會가 잇는反面에 저 덧끼리를 求하려고 男女와老少의 別이업시工場으로나아가 終日토록 機械의연진과 싸우며 不潔한空氣속에서 靑春다운靑春을모르고 歲月이가고 白髮이와서 蒼白한얼골에 주름살만느러가는 工場의 日貨勞働者가 사는 土幕이잇다 保合堡!保合堡!記者가 차저가는 이保合堡는 滿洲事變때에 奧地에서避難되여 몰려든赤貧同胞와 故土의生活戰線에서 敗北를 當하고 鴨江을건너선 同胞들만이 살고잇는곳이다 이곳은 全部 土幕과가튼所謂平板집이다 집웅을흙으로 平出하게만는 中國『苦力』(最低級勞働者)들이 사는집으로 되엿는데 奉天市街에서 五里餘나相距하여잇다 三百餘戶나 되는 우리同胞가사는데 그全部가 工場의 日貨勞働者라고한다 家屋의設備가不充分하니만큼 家賃이 헐한탓으로 赤貧者만이몰려잇다 때마침 비가쏘다저서 記者는 (洋車人力車)를 타고달닐때에 뒤에서따라오는 어떤친구가 조선말로 『제긔팔자조흔놈들은 비가 두어방울만떠러저도 洋車라고!하!이놈아 시끄럽다『빨힐랑뭐기지마라』하면서 손에든『벤또』갑을 덜렁덜렁흔든다 記者는분에넘치는洋車를 탓다가 작고만끄러나리는것가태서 등골에땀이흘럿다 서투른 中國말로 간신히 保合堡普校를 차저서 事務室에 드러서니 한숨이 휘나간다 趙炳喆先生이 親切히말슴하야주어서 學校에 對한來歷과 事情을 잘아럿다 이學校는 今年正月二十日에創立되엿는데 創立當時의 事情을 드러보면 매우눈물겨웁다 三百餘戶나되니만큼 學齡兒童은 만호나 敎養할機關이업슴으로 恒常 痛嘆하야마지안튼當地靑年들이 正月明節에 總出動하야 素人劇을 꾸며가지고 奉天市街地를돌면서 有志들의 同情과其他에 分分히求乞하듯하야 모혼돈三百餘圓으로 中國式家屋二間을빌어서 學校看板을 거럿다고한다 참으로 奇特한靑年들이다 그靑年들의勇氣와 活動하는熱誠에對하야무어라고感謝를드렷스면조흘는지모르겟다 이消息이奉天社會에퍼지자奉天에잇는有志朴承薰氏外몃몃분의發起로 保合堡普通學校理事會를 組織하고 同理事會에서 年經常費二千五百圓式을 支拂하기로되엿다고한다 精誠이 하늘에다엇스니 엇지 일우지못하리요 洞里靑年들이 이와가티 압날을爲하야 싸우는데 그뉘가 同情하지안흐리요 理事는 스믈세분이게시다고한다 모다奉天의有志人物들인만큼 學校의將來가 매우洋洋하다 그리고 敎室이 넘우 보잘것업슴을 본 同校理事長朴承薰氏는 私財二千五百圓을드려 校舍를買入하얏다는데 記者가보기에 아조宏壯하다 建物百六十五坪 運動場七百餘坪인데 建物은全部煉瓦로 지엿다 새로修理한建物인만큼 아조께끗하다 아직二學年까지잇고 生徒는男子七十五名 女子五十七名合하야 百三十二名이라고한다 校長金永偈氏는 계시지안허서 뵈옵지못하고 金永三、金興權、趙炳喆세先生의 歡送을바드면서『精神一到何事不成』이란標語가 달리여잇는同校門을 나섯다。

# 光州支局主催 南朝鮮蹴球
## 參加靑、中、少年十七팀 空前大盛況裡終了

【光州】본보광주지국주최 제륙회남조선 축구대회(第六回南朝鮮蹴球大會)는 예정과가티륙칠량일간에 광주공설운동장에서오전팔시부터 개시하얏든바 참가팀은 청년십일팀과 중학두팀소년다섯팀으로 전부십팔팀이란공전의 대성황으로 량일간에 특별한 묘기를 보이여 일반관중을 환희케하고 청년부우승은정읍(井邑)군 중학은 고창고보(高敞高普)소년은 광주철성(光州鐵星)군에게로 도라가서 회장현준호(玄俊鎬)씨로부터 우승긔와 우승배의 수여식이잇고 칠일오후 오시로 대성황리에 최종막을 다던섯는데각부우승전의성적은다음과갓다

◇少年決勝 ▲光州鐵星二—一光州YMCA
◇中學決勝 ▲高敞高普 (棄權)井邑農校
◇青年決勝 ▲井邑蹴球團四—三全州蹴球團

# 生活難과病苦로 中年男子自殺

【群山】지난칠일오전구시경 군산부월명정(群山府月明町)녀학교(女學校)압빨래하는 우물에 의사시체가 떠잇는것을 빨래하러온아낙네가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를한바 경찰서에서는 즉시 공의를대동하고 현장에 이르러 시체검사를한결과 그는 부내신풍정(新豐町)에사는김모(金某)로서 그는오래전부터 폐병에걸려 신음하야오는한편 생활고까지겹치게됨으로 모든것을 비관하고 그가티 투정자살한것이라한다

# 全南에旱魃繼續 苗板이全部涸渴
## 十一日부터制限給水

【光州】벼자홍년이란류설에 일반농민의신경이 예민하야잇는이즘에 전남일대에는 약이개월간을두고한번의비도 나리지안코한발이계속됨으로 모판(苗板)들이말라 농가에잇서서 더말할수업는고통을당하고 잇다는대 일반도민은 작년의참안적한해로 인하야쓰라린고통을 체험하엿든만큼금년도 또한해을 당하게되다면더사라갈도리가업다하야 극도의우울중에 걸린사람이 적지안타는바 사실에잇서서 이이상한발이계속되다면 세민층은 물론 중산층이상에도 막대한 타격을주게되엿고 광주부에서는 저수지의물이 얼마업게되야 오만부민의금후음료수려려가되야 십일일부터 제한급수를하게되얏다한다

# 神戶俱樂部主催로 全關西蹴球大會
## 十六、七兩日間開催

【神戶】금년칠월에 개최되는세계『올림픽』대회를 압두고 각종운동경긔는 전세계적으로 팽창하여 잇는잇때 신호에 재주하는 동포의 체육단체인 조광공제구락부(朝光共濟俱樂部)주최로 오는 륙월십륙、칠량일간 전관서 조선인 축구대회(全關西朝鮮人蹴球大會)를 당지시민운동장(市民運動場)에서 개최한다는바 통긔가 발포됨을 따라 전관서에산재하야잇는 체육단체는 물론 각방면의 인긔는 비등하야 당일의 성황을 예기하고 주최측은 모든 준비에 분망중이라하며 대회의 규약은 다음과갓다고한다

◇大會規約
一、大會는全關西朝鮮人蹴球大會라稱함
一、大會는 體育發達과 蹴球發展을目的함
一、大會競技規則은昭和十年度大阪朝日新聞社年鑑에一式을遵行함
一、大會參加團體는 代表一人主將一人選手十一人 後補二人으로定함
一、大會優勝團體는 特製優勝旗를授與함
一、大會競技時間은 豫選五十五分決勝七十分으로함以下略

# 地方人事

▲林臣眞氏(劇團文秀黑代表者)徐丙昊 申一仙氏外團員引率百濟古都訪問興行入事次本社扶餘支局來訪
▲武田鎭太郎氏(光州稅務監督局稅務部長兼經理部長) 新任人事次本報光州支局來訪
▲徐萬衆氏(忠南恭興官)轉任人事次本報大田支局來訪

# 十餘尺의土窟崩壞 人夫三名이生埋
## 開城府外炭洞里慘劇

【開城】개풍군진봉면 탄동리(開豐郡進鳳面炭洞里)일천번지에 거주하는 서룡선(徐龍善)(三二)등은 동리장석방(張錫方)산에서 김정득(金鼎得) 김성순(金聖淳) 정일록(丁日祿)과가티 삼포(蔘圃)에 사용할 황토(黃土)를파다가 지난오일오후한시경에 별안간노피 십오척이나되는곳에서 토굴이문허저서 전기용선의전신은 흙속에 기피무친채 고마지지하야 죽어버리고 전기 일록、정득두명은 무릅까지 흙에 무처서 숨이맥혀 허덕이는것을 때마츰 순의 구원으로 겨우 살어낫는데 작업도구까지전부매몰된 때문에 그들은 용선의 시체만은 캐낼수 업슴으로 동리에달려와 고함을 처서 동민의 긴급동원으로 약한시간반만에 흙더미를 파내서 무참히 압살된 시체를 끄집어내다한다。

# 變態性慾者에 懲役二年求刑

【大邱】늙은자가 열한살먹은 어린소녀에게 추행을 하엿다는혐의로 법정에서 징역삼년의 구형을바든자가잇다——그 늙은자는 경북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慶北達城郡壽城面大明洞)최봉춘(崔奉春)(四五)으로 지난 월이십구일 오후두시경 경산군남천면 하도동(慶山郡南川面河道洞)부근에서 청도군 화양면 송림동(淸道郡華陽面松里洞) 리복식(李福植)(一一)에게 길을 인도하야가다가 돈집전을 주고 어린 복식을 꾀이여서 금수와가티 추행을 하엿다。이에 그아이의 부형의 고발로 범망에 걸리어 취조를 밧다가 지난 륙일대구지방법원에서 공판에 회부되여 김검사(金檢事)로부터 징역삼년을 구형하엿는데 언도는 십일일이라 한다。

# 四郡聯合 庭球大會
## 安峽體育會主催

【伊川】강원도안협체육회(安峽體育會)에서는 린접청년의 친목과체육발달을 도모코자 다음과가티 제일회사군련합 정구대회를 개최한다는데 다수참가를 바란다고한다

一、時日 六月二十一日
一、場所 安峽公普校運動場
一、申込金 一팀一圓(一팀二組)
一、申請期 六月十七日
一、申請所 安峽體育會
一、賞品 優勝旗及副賞
一、試合區域 伊川郡、鐵原郡、漣川郡、金川郡

## 安岳
# 全朝鮮男女自轉車大會

▲時日 六月廿一、廿二兩日間(每午前十時)
▲場所 安岳公設運動場
◇主催 安岳輪業親睦會 朝鮮日報安岳支局
◇後援 安岳體育協會

## 水原
# 滿洲視察團員募集

▲時日 六月廿一日出發、七月三日歸着
▲視察地 撫順、大連、旅順、營口、奉天、新京、哈爾賓、圖們、羅津、淸津、朱乙、京城
◇主催 水原驛
◇後援 朝鮮日報水原支局


金 銀 福 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フクシイウゼイへ)略號
本店 東京市下谷區徒町

◎性器強大靈藥◎
(中國瑞廉士大醫生四十年研究大名藥)
◎主治効能◎
男子性器強大、陽萎、早漏、遺精夢遺、情欲缺乏、發育不全◎性的不滿으로家庭에不和를當하야家運의衰退함을苦悶하시는분은絕對有効한淸導補腎丸을服用하십시오、服用一週日이면놀라운性慾이爆發하야○○時에滿足과喜悅에넘칠것이人生最大幸福
半個月二圓 一個月五圓 半二個月十圓 (先金注文送料負擔)
滿洲國安東縣財神廟街八〇
振替京城二四六一二番 東亞公司

肺病必治
꼭낫는다!!
無料(內務省(衛生局)痲藥의結核에關한 文獻과나의全治된自宅療法을가르처드리고 또良藥을無代進呈함)
여러가지藥을먹어도낫지못한人士와 조흔藥과조흔養生을알려는사람에게

엇더한 重症患者라도 勿爲失望

身熱이나리지안는분 / 기침이끗치지안는분 / 밤에식은땀나는분 / 喘息되는분 / 喀血되는분 / 억개가무거운분
不眠症잇는분 / 每日寢汗하는분 / 胃腸이弱한분 / 頭痛나는분 / 倦怠症나는분 / 胸腰痛잇는분 / 關節이잇는분

第三期患者도念慮마십시요 내가나흔것이무엇보다도證據입니다 數年前에무서운肺病에걸이나는世上에흔한賣藥과療法에莫大한金錢을無益하게쓰며有名한先生에게診察을보앗스나죽엄을기다릴뿐인重病에나는安心하고잇슬수업슴으로全生命을밧처가며모든全快法을研究하엿습니다 研究가허되지안허一時는明日의生命이危殆한듯한나는드디어二個月後에는 以前보다도健康한身體가될수잇섯습니다 나에게는 가장有効한 肺病特效藥과其他病잇슬當時의 實驗談과選擇法 갈흔기침끗치는法 喀血腹痛食料品의 選擇法一切의 肺病治療秘訣을一一히懇切叮嚀히無料로누구에게든지가르처드림니다 또特殊한患者에게는 特効良藥을無代로드립니다 肺病、肋膜、肺炎、加答兒로苦生하시는분은 이글을보시게된것이무엇보다 多幸입니다 一日이라도 百年의後悔가되기前에 이新聞名(朝鮮日報)를記入하야 肺病全快法無料送付하라고하십시요 이것도救人하기爲하야하고잇는것이오니 本人自白
東京市小石川區東靑柳町三三
松島敎正

夏物洋服品揃
羅紗製品 卸問屋
限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大阪市谷町一ノ一四 羅紗問屋

諸金物 木手器具、建築金物 理髮器具、家庭金物 卸問屋
(同業者에限하야型錄送呈함)
正宗又物本舖 大阪市南區安堂寺橋通二丁目 大野合名會社

特約店募集
高級別誂注文 品質仕立은保證付

◇見本送呈 (申込은大阪에)
二十圓부터 三十五圓까지 別誂注文合服折衿三揃
十八圓부터 三十圓까지 別誂注文夏服折衿上下
上衣七圓半・ズボン二圓半
全鮮各地方에出張員의便宜가잇사오니多少를不拘하시고、만흥愛誦하야주십시요
創業明治二十八年
正司憲商店 京城支店 京城府櫻井町一ノ一三〇

# "米穀統制目標" 專賣制로落着?

③ 申泰翊

그러므로 지금에잇서 米穀統制問題의 最終的目標를 米專賣에 두는傾向이 顯著한바 이에對하야는 두가지의事情이 잇다 卽

（一） 米穀統制法과 米穀自治管理法의 併行으로써 米生産過剩의 對策을 삼게되어잇지만 人力으로 그주的左右를 못하는 米의豊作이란 大事로因하야 그過剩의對策이 完全을 期할수업서 다시 이에對한根本的對策을 講究하여만 될境遇가 잇슬는지 모른다 만약 이런境遇가생긴다고 하면 이때에는 또 어떠한對策을 세우게될가 이에잇서 從來 朝鮮米에對한 正當的對策의主張이 잇섯스나 이것이 實現의可能性이 업섯든만큼 다시 이것을 論議할餘地가 업게되엇다 그래서 當局에서는 一時的 도한 的對策을 내어버리고 根本的으로 統制問題를 解決할 實際로 도라가게 되고말것이라는點。 ×

（二） 米穀自治管理法은 다만 米穀統制法에 對한 補遺的工作으로 그主眼은 米生産過剩에 關한 對策 卽 必要한 程度以上으로 넘처 米價로하여금 暴落케하는 作用을하게될때 이것을 除去하여서 米價暴落을 防止케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境遇와 反對로 米生産過剩을떠나서 米不足卽 需給關係에比하야 供給量이 顯著히 不足케되거나 또은 不良의 境遇를 갓게될때에는 이것은 米價를暴騰케하는 作用을 하게되고 따러서 一般의 米消費者生活을 威脅하는 結果가 생긴다 이에 對하야 米穀自治管理法의 機能은 何等의 效果를 볼 性質의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米穀自治管理法은 單純히 米生産過剩의 對策이 될뿐으로 社會政策的 目標와 最高政策的目標를 充分히 調和케할수가 업다는 때문으로 다시 根本的統制의 確立이 必要케되고 따러서 이에잇서는 米穀統制의 主體로 하여금 米穀供給을 支配하는 專賣制를 必要케하는 事實이 나오게되는點。 ×

그래서 最後米穀統制問題의 最終的目標인 專賣까지 가느냐 그러치안코 이制度를 보히는 程度에 끈치게 될것이냐 하는것이 압헤 노힌 重大問題로 論議가 생긴다 그解決을 어떠케 지을는지가 가장 注目을 끈다 그러나 가령 米專賣를 하기로 된다고 하면 그專賣가 可能할것이냐 或은 可能性이 업는것이냐 하는것이 目下 問題되는것이다

첫재 米專賣가 可能하다는 論據를 드러보자 오늘에잇서 米穀統制法과 米穀自治管理法의 實施로 專賣制를 實行할 準備가 되어잇다 하는것이다 그러나 그밧게 政府가 米專賣에 必要한 資金의 問題 또 米의 保管設備의 問題等이 잇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米專賣를 하게되면 그實現의 可能性이 充分하다고 보는것이다 그러나 米專賣를 實行하려면 米穀의 生産量以上의 收買를 하여야 하고 그러기 爲하야서는 相當한 財政的負擔을 각오하지 안흐면 아니된다 ——（續）——

# "統制法朝鮮適用" 朝鮮産業을破滅

## 藤田調査官中心懇談會에서

## 朝鮮側一元化反對

京城商議에서는 入京中인內閣調査局藤田調査官을 主賓으로하고 綿絲、紡績、人絹、織物、染色加工、가ー바이트、硫酸、硫安、酸素、硬化油、세멘트、小麥粉、製糖、麥酒、石炭、고무靴等의 各産業部門代表者十六名을 八日 午後二時半부터 銀行集會所에 招待하고 重要産業統制法의 外地適用問題에對하야 意見을交換하얏는데 먼저藤田調査官으로부터 重要産業統制法은 이것을 國家的大乘的立場으로보아 朝鮮産業이라는小局的見地를 超越하고 統制法의 施行에對하야 協力하야달라고 朝鮮側의 協力을 求하얏슴에 對하야 朝鮮側各産業部門代表者의 一致한意見은 朝鮮에 日本內地와同條件下에서 統制法을 施行한다는것은 朝鮮內産業의 企業採算을 不利에陷하고 成長되는 産業의 成長을 限止하며 日本內地資本의 誘致에支障을 生하야 結局은 朝鮮産業을 破滅에 導하는것이니 絶對로 反對한다 但朝鮮內만의 經濟事情에依하야 統制할必要가잇는것은 이것을 朝鮮獨自의 立場에서 統制하드래도 無關이다 라고 應酬하야 意見이 對立된대로 午後六時半에 散會하얏다

# 旱災의對策 陸稻奬勵方針

昨年湖南旱災에 繼續하야 今年도 全朝鮮에亘하야 用水不足을 念慮가잇고 旱災의 根本的對策이 重視되엇는데 그解決의 一策으로 陸稻栽培의 合理的改善이 提唱되야 總督府에서도 硏究키로 되엇다

現在 朝鮮의 陸稻는 面積約三萬八千町步、收穫二十六萬石 가량으로 高地其他의 特殊地帶에서 栽培하고 段當收穫은 水稻에比하야 二割乃至三割減의程度인데 京畿、全北은 段當八斗程度의 收穫이다 그品種의 改良肥培管理를 改善하면 相當히 上昇될모양이다 이것을 旱災頻發地 水利不便地에 普及하면 旱災를 어느程度까지 克服할수가잇다 現在 昨年의旱災에는 全南에서 今年은 平南에서 各各奬勵한다

# 政府所有 古米拂下

## 關門一萬二千俵

【下關電話商通】十年産米의天井不知의 騰勢와 蓬萊米의出廻遲延傾向으로 深刻한糯米飢饉소리가 全國的으로 瀰漫되던바 九日朝關門組合倉庫保管의 防長赤小粒五等一萬二千俵가 最高價에依하야 地場商人에게 拂下되어 一俵에 十錢의 朝鮮米損得하고 筑豊炭坑側이 買取하얏다 이에依하야 關門組合倉庫의 防長古米의政府持米는 一掃되리로 門司米穀事務所保管의 三千萬俵는 來十五日까지에 大阪、名古屋、北陸方面에 移送되리라한다

# 北鐵公債發行

【東京電話同盟】滿鐵 신의의 九日 興銀에 參集하야 第四回北鐵買收公債發行에 關하야 다음과가티 決定하고 主務官廳의 認可가 잇는대로 發表키로되엇다

一、總額 三千萬圓（總額 一億八千萬圓中 第四回分）

一、利率＝年四分

一、發行價格＝百圓에 對하야 九十九圓七十五錢（前回에 比하야 二圓二十五錢上）

一、期限＝十個年（但 三個年据置後七個年에 年半期十五萬圓以上償還）

一、拂込期限＝八月上旬의 豫定

一、引受＝滿洲國國債 신의케트團

# 朝銀金買上高

## 繼續顯著增加

五月六日政府가 地金買上價格을 引上한後 地金買賣業者及 鑛業者로부터 朝鮮銀行에 地金을賣却코저 殺到하는關係上 朝鮮銀行의 金買上高는 激增하야 五

# "中國通貨制度"

## ②……過去十個年間變遷

一九二八年度의 世界新産銀高는 約二億五千七百萬온스 그中 中國政府側의 買却과 銀貨鑄造이 約七千萬온스에 達하고 그中 中國이 引受한額이 一億二千五百萬온스 印度의消費가 一億六百萬온스이다 이와가티 많은銀流入이 影響되어 上海銀塊의 市勢가 顯著히 떠러저 爭事 鑄貨作業을 中止케되엇다 그러고 中國財政金融市場에 注目할것은 當年十一月一日로부터 中國中央銀行이 開業하고 同時에 中國銀行과 交通銀行이 改組되야 半官的機關으로 되엇다 또 그때에 에드윈•더브류•케메라博士를 委員長으로한 中國幣制調査委員會가 到着한것을 듣지안흘수가업다。 ×

一九二九年을 通하야 銀塊市勢는 漸落步調를 나타내다 이것은 主로 中國의銀需要가 이미 飽和狀態에 達한것으로 본때문이다 當年의 世界新産銀生産高는 約二億六千百萬온스 다시 英國과 佛國은各各約一千萬온스를 鑄潰하야 銀塊를 팔어버렷다 印度의 消費는 一年間 約八千二百萬온스에 達하엿스나 一面 印度政府가 約三千五百萬온스의 銀을賣却하엿다 此等銀塊의 大部分이 中國에 流入되고 또 經濟으로부터도 多額의 銀塊가直送되야 一九二九年의 中國銀塊消費는 總額一億三千六百五十萬온스의 記錄的數字를보이고 中國어 그以上 만흔銀供給을 吸收할힘이 업슴이 明白케 되엇다 그러고 中國의銀需要가 今後顯著히 줄것이라는 豫想은 年末에 이르러 銀市勢를 崩落케하엿다。 ×

一九三〇年은 銀에 對하야 가장 災厄年의 하나로서 記憶되다 卽一九二八年上半期에 多少回復되엇든 銀市勢는 그뒤 다시 落勢로 變하야 一九三〇年에는 一年間에 三割三分가 떠러저 未曾有의 低價를 나타내다 銀市勢의 崩落과 그影響을보고 銀의經濟的作用이 漸次 世界的 關心事로된것도 當然하다 當年에 잇서는 여러가지의 重要한改革이 잇섯든바 卽一月 一日로부터 海關兩이 廢止되고 그 代身으로 海關金單位는 金純分 六〇、一八六六센지그람으로 米國弗四〇仙 英貨一八片七二六五에 相當하다 이重要한 改革의 直接的結果는 市勢의急落이며 銀市勢의 急落은 海關收入에依한 中國의 外債支拂力을 威脅하엿다 當時 中國의 外債支拂은 年額九百萬磅에 達하나 銀市勢 低落의 結果 이에 드는銀의 總額은 一九二五年當時에 比하야 約六割의增加로되엇다。——（續）——

# 製絲低能率原因

## 繭優良粗惡品混合

朝鮮의 製絲工場의生産費는 基準價格協定에잇서 例年問題가되엇는데 今年度基準價로보아도 二百三十圓을 算하고 이것을日本內地에比較하면 有力製絲의코스트는 百二十圓乃至百五十圓이라지만 이것은 別途로하고 組合製絲를 보드래도 平均百六十圓을 示하여 此間實로 七十圓의 大差가잇다 그原因으로서 從前朝鮮內女工의 能率이 相常云謂하엿스나 이것에 對하야 鐘紡光州工場에서 日本內地優良繭을 移入하야 調査한바에 依하면 優良繭으로서의 能率은 朝鮮內女工이 日本內地에 比하야 도리어 良好하고 鮮內의 特等繭의 試驗으로도 그能率이 決코 日本內地에 遜色이업는것이 明白케되엇다 現在朝鮮內의 製絲의 低能率은 結局朝鮮內의 繭이 優良品 粗惡品이 混合되엿슴이 判明되엇다한다

# 米運賃의 荷主相剋

## 船會社側調停?

朝鮮穀物協會聯合會가 運賃協議會를 今月二十七日 京城에서 열겟다고 日本內地、朝鮮荷主에 招請狀을 發하엿슴에 對하야는 船會社方面도 重大視하고 八日 森朝郵社長、小山大阪商船京城出張所長이 齋藤穀聯幹事長과 懇談하는 同時에 總督府關係當局과도 懇談하엿는데 要컨대 船會社로서는

（一） 日本內地、朝鮮荷主가 開催場所等의 問題로 對立한다는것은 不可하다는것이다

日本內地當業者에게 큰 威脅을 要求하는 것이라하야 朝鮮側의希望에는 大反對를 表明하고 이것을高壓的으로 商工省에通하야 總督府에對하야 再考를要求하얏다 이에對하야 總督府에서는 當初부터 當業者間에 自治的으로 互讓協調케할것이며 商工省의介入은 問題를 紛糾에 導하는것이라하야 다시 紛糾에 陷하는것이라 하야

# 琺瑯輸出協定의 朝鮮案에反對表明

## ◇……品種別의問題로

問題의 琺瑯鐵器輸出의內外地統制一元化에對하야서는 朝鮮側의回答에對하야 日本內地側에서는 西部琺瑯鐵器組合聯合會에서 協議한結果 朝鮮側의品種別希望은 日本內地當業者에게 큰 威脅을 要求하는것이라하야 當業者의再協議에依하야 解決코저하는意向이라한다

# 米運賃協議會

## 船會社側도出席

朝鮮米新輸送問題로 齋藤穀聯幹事長과 商船小山支店長의 兩氏는 八日 午後 井上遞信局長과 會見하고 運賃問題의 經過를 說明하고 極力 圓滿한 解決을 要望하엿다

（一） 朝鮮米運賃契約은 宗主權에 對하야는 公平한 眼目으로보아야 할일

（二） 日本內地、朝鮮平等히 할일

（三） 그러므로 兩者의 對立이 激化함은 運賃改訂의 解決이 遷延되야 船會社로서는 苦痛이 되는일

等의 意味로 日本內地、朝鮮荷主의 相互에 對하야 調停을 引受하고 運賃問題를 極力 圓滿히 解決할 意向으로 今後 側面工作을 하게될모양이라고한다

當局의方針其他에 對하야 意見을交換하엿고 一面山田勝氏로 하여금 吉池穀物所長代理와 會見하야 穀物側의意向을 聽取한뒤 九日朝 船會社側의態度를 決定하라고 協議中인데 七日의京城協議會에는 二、三會社代表가 參列키로 內定하엿스나 大體로는 十一日 大阪에서 열니는會議에서 決定될모양이라고한다

# 洋灰增産中止

## 一年間을延長

【東京電話商通】세멘트聯合會의 定例理事會는 十九日 東京에서 열리인데 結局 增産計畫中止를 다시 一年間延長하고도 現行의 高率減産도 据置케될모양이라고한다

# 取引停止

（五月五日）▲食料品卸問屋 京城府明治町二丁目二五番地 星商會 梁在星▲京城府貫鐵洞一九二番地李謙夏▲雜貨 京城府明倫町二丁目一九八番地 藤田實

# 經濟界消息

○朝鮮木材創立＝朝鮮木材工業株式會社（資本金五十萬圓、拂込十五萬圓）의 創立總會는 九日午後二時부터 열고定款其他原案대로 可決하엿다고

○京春鐵道株申請＝京春鐵道의公募株는 十日로부터 殖銀及京城各現株店에서 取扱키로되바 九日아즘까지의 期日前申請은 約二萬株에達하엿다고

○産業統制法施行으로 藤田調査官이 朝鮮에와서 統制一元化를說明

○八日業者와의 懇談會席上 業者側 一齊反對

○國家的立場에서 한다는것이니 反對측으로 막어내기는 어려울것

○東大門外 地價 暴騰을 새삼스럽게 떠들지만 서투르게손대스다가는 큰일

# 商況【九日】

## 株式 伸惱하다가 高騰

前場伸惱 今前場은 昨後場의 上進의뒤를이어 東新百三十五圓二十錢、鐘新百五十七圓六十錢、日産七十三圓三十錢에 買人氣繼寄付이엇스나 高價를警戒嫌重하야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十錢低인 二圓七十錢、鐘新七圓三十錢、朝新不變인 二十六圓三十錢、日産七十圓二十錢에 各大引、朝石十九圓二十錢이엇다

後場好勢 後場은 東新百三十六圓十錢、日産七十二圓九十錢、鐘新百五十八圓八十錢 朝新二十六圓五十錢에 一齊高價로好勢裡大引

## ▲北濱情報

【大阪電話】雜株의循環買가 依然繼續됨으로 新東은 一部買方의買煽이어엇스나 東洋레ー온三分減配說로 市場全般의空氣를 阻害하고 高價停滯氣味 東電은 八分配當이면 現在의利廻六分三厘이오 今後의 增資含으로 買氣滯在 東洋모스는 八分配當說로 買氣旺盛하고 狼狽的物으로 一圓三十錢躍進 세멘트株는 實方의踏上으로上放이고 鐘紡、鐘新은 增資說로 買進되엇스며 大同電力은 十日前場限六分의 配當落着으로 立會이다

## 高價買는警戒

今前場東京東新은 百三十五圓七十錢으로 六日의五圓五十錢을上廻하얏스니 또伸惱이엇다 取組가 적어서 投나 踏이나 나올것이 顯著치안코 反戾되고는 賣케되고 採合하야 材料로오

## 鐘新純投機化

東新이 去勢되자 鐘新이 援込되는 鐘新의 增資이다 이것저것을떠들어 不測의 變動을 演하고 鐘新이 投機株化하야 市場의 注目이 集中되어잇는데 鐘紡自體의 經營方針이 投機化한 以上當然한 推移라 하겟스나 鐘新의 投機性은 도리어 警戒할것이아닐지 會社當事者의 注意할일이라할말도잇다

## 實物前場取引

▲滿洲電信電話一〇〇〇 ▲日滿아르미늄三〇〇 ▲鮮滿開拓一〇一〇 ▲東洋拓殖三〇〇 ▲片倉製絲三五〇 ▲北樺太鑛業三五〇（取引高【株數】）

# 市場六感

米……旱地의民心을 喜悅케하는 慶天은 小雨를 灑來하엿을뿐으로 그만 晴天이되는모양

# 東京國債市況

# 大阪國債市場

# 期米 新高價後反落

# 植付가難問 甘雨는難望?

# 堂島期米漸落

# 各地正米

# 今日財界（九日）

[illegible]

康益夏商店 仁川 米 株 京城 金益証券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案內書贈呈 京城黃金町

株式 期米 柳來楨商店 仁川府本町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

[illegible]